

아티컬

Incheon Culture & Arts Center Magazine

<p>VIOLINI</p>  <p>Robert Kowalski Spalla</p> <p>Tamas Major Spalla</p> <p>Walter Zagato Sostituto Spalla</p> <p>Andreas Laake la parte</p> <p>Hans Livioella la parte</p> <p>Barbara Ciammea-Monte Rizzi Sostituto la parte</p>						 <p>Maria Cristina Andrae Ferrarini</p> <p>Fabio Arnaboldi</p> <p>Chun He Gao</p> <p>Denis Monighetti</p> <p>Piotr Nikiforoff</p> <p>Katie Vitale</p> <p>Duilio Gaffetti</p> <p>Irina Roukavitsina Bellisario</p> <p>Cristina Tavazzi-Sevoldo</p>					
<p>VIOLIE</p>  <p>Monica Berda la parte</p> <p>Ivan Vukčević la parte</p> <p>Matthias Müller Sostituto la parte</p> <p>Aurélie Adolphe</p> <p>Andriy Burko</p>					<p>VIOLONCELLI</p>  <p>Taisuke Yamashita la parte</p> <p>Johann Sebastian Paetsch la parte</p>		 <p>Felix Vogelwang Sostituto la parte</p> <p>Beat Helfenberger</p>		<p>CONTRABASSI</p>  <p>Ermanno Ferrari la parte</p> <p>Enrica Fagnone la parte</p> <p>Anton Uffe</p>		
<p>FLAUTI</p>  <p>Bruno Grossi la parte</p> <p>Alfred Ruta la parte</p>		<p>OBOI</p>  <p>Marco Schiavon la parte</p> <p>Federico Gioria la parte</p>		<p>CLARINETTI</p>  <p>Paolo Beltramini la parte</p> <p>Corrado Guffredi la parte</p>		<p>FAGOTTI</p>  <p>Vincent Godel la parte</p> <p>Alberto Bianco la parte</p>		<p>CORNI</p>  <p>Zora Siskar la parte</p> <p>Georges Alvarez la parte</p>		<p>TRUMPANI</p>  <p>Louis Sauvêtre la parte</p> <p>Sébastien Galle la parte</p> <p>Mikko Raspani la parte</p>	

기다림

기다리지 않으면 더 이상 아프지도 않을 텐데요
오늘도 무거운 시선 힘겹게 가누어 돌아오리라는 희망에 초점을 고정합니다.

묻어두면 '그만'일 텐데요,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 몸을 맡겨두면 '저절로' 돌아갈 텐데요,
오늘도 어리석게도 막연한 기다림을 선택하면서 '그것'들을 붙잡아두려 합니다.

기다리지 않으면 '나'도 사라질 듯해서요,
기다리지 않으면 그 껌껌한 심연이 '나'도 집어삼킬 듯해서요.

Vol.27 2014-Autumn

아트인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정보지



Cover Story

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 & 스위스이탈리안오케스트라

2014년 9월23일(화) 오후 8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등록일 2008년 3월

발행인 박동춘

편집인 신재명

편집장 조우선

T.(032)420-2735 E-mail:woos4242@korea.kr

편집·교열 유은미

취재·기획 정수신나, 오수지

디자인 기획 전재삼

디자인·인쇄 네오다큐

취재 김지숙, 유재원

사진 유창호

디자인 이호진

발행일 2014년 8월 28일

발행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405-840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149

http://art.incheon.go.kr/

Contents

Column & Interview

- 06 People1 한 가지 확신을 위한 무수한 의심 연극인 남영렬
- 10 공주형의 미술이야기
- 14 People2 무대를 만드는 사람들 3
배우들 캐릭터에 생명력을 입히다 무대의상디자이너 정경희

Preview

- 18 Orchestra 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 & 스위스이탈리안오케스트라
- 20 Theatre 스테이지149 - 연극선집 II 알리바이연대기
- 22 Theatre 스테이지149 - 연극선집 III 투명인간
- 24 Theatre 스테이지149 - 연극선집 IV 칼로막베스
- 26 Orchestra 시립교향악단 마에스트로시리즈3
- 28 Concert 밴드데이 X 갤럭시익스프레스

Review

- 30 Cartoon-Review 밴드데이
- 32 Choir 시립합창단 그레오(CREO)
- 36 Photo-Review 빙하탈출대소동

Information

- 38 Space 그림이 있는 공간 갤러리GO 외
- 44 IMAG (Incheon Metropolitan Arts Group)
- 48 News
- 50 Performance 9~11월 공연 소개
- 54 Exhibition 9~11월 전시 소개
- 56 Culture Leader 가입안내 회원가입안내 & 제휴점



14



10



28



18



38



24



26



06



36



32



22

한 가지 확신을 위한 무수한 의심 〈알리바이연대기〉로 인천을 찾는 배우 남명렬

글 유재원 사진 유창호

남명렬은 선명했다. 눈썹과 눈동자가 선명해서 감정이 잘 보였고, 생각이 선명해서 말에 사족이 없었다.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확신은 아니었다. 스스로에게 무수한 질문과 의심을 던진 후에야 가질 수 있는 단단한 확신. 그가 생각하는 연극, 자신에게 주어진 연극 속 인물, 배우 자신 모두가 동일하게 품고 있는 특징이었다. 남명렬이 확신을 가지고 인천에 온다. 9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 될 작품 〈알리바이연대기〉와 함께



남명렬은 김태용을 설명하며
그의 눈빛과 행동을 그대로 재현했다.

천천히 옷을 터는 손짓과
한 곳을 오래 더듬는 눈동자.

말과 말 사이의 긴 여백과

유보하는 화법...

배우 남명렬과 그가 몰입해 온 '현재'들

느닷없이 비가 내리던 여름 오후, 남명렬을 만났다. 혼자만 조용한 대학로의 어느 카페에서였다. 공연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자연스럽게 편안해 보이던 그에게 연극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언제냐는 의례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유연하지만 냉철한 답변이 돌아왔다.

“처음 접한 건 대학 때지만 저는 직장생활도 했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예요. 30대 때였죠. 하지만 연극을 놓은 적은 없어요. 전업이 아니었을 뿐이죠.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왜 작가들 봐도 다른 직업과 병행하다가 전업의 길로 들어서는 분들 많잖아요?”

그는 무대 밖의 이야기로 자신의 연기가 평가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 같았다. 그의 말처럼 30대에 전업 연극배우가 되기로 결심한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로부터 지금껏 변함없이 무대에 오르고, 연극에 몰두하며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은 대단하다고 말해 마땅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또다시, 단지 무대에 오르는 그 순간에 충실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직장을 그만 둘 때 어떤 대책을 가지고 그만둔 게 아니었어요. 실적으로 평가받는 영업직이 인간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만 둔 거죠. 지금도 그래요. 뭘 하기 위해 대책을 세우기보다, 단지 현실에 충실하자. 지금 현실에... 현재는 과거 삶에 대한 투사고 미래는 지금 현재 삶에 의해 이뤄지는 결과물이니까요.”

이 말로부터, 남명렬이 몰입해 온 '현재'들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그 자리엔 늘 어떤 배역과 작품이 함께 있었다.



개인의 삶을 조명하며, 시대를 성찰하고자 한 작품 <알리바이연대기>

9월 26, 27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될 연극 <알리바이연대기>는 아버지 김태용, 형 김재진, 동생 김재엽, 3대(代)의 개인사를 통해 시대의 모순을 들여다보고자 한 작품이다. 남명렬이 연기한 김태용은 <알리바이연대기>의 작가 김재엽의 친 아버지다. 작품은 아들 김재엽 씨가 아버지 김태용에게 품고 있던 작은 의문으로부터 출발한다.

“재엽이가 군대를 가는 것도 아니고 공익근무를 하기 위해서 훈련소에 4주간 교육을 받고 나왔는데, 그 앞에서 아버지가 재엽이를 안고 평평 우셨대요. 일반적인 다른 부모님들은 공익이면 훈련소 앞에 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거길 아버지가 온 거야. 평소 아버지 모습으로 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대요. 근데 통곡을 하시니까 재엽이는 왜 오셨냐고, 왜 우시냐고 물어보지 못했던 거죠. 그 의문으로부터, 아버지는 왜 그랬을까를 하나씩 찾아가는 과정이 <알리바이연대기>예요.”

남명렬은 김재엽 작가와 함께 그의 아버지, 김태용 씨의 알리바이를 짚어 나갔다. 다시 보니, 김태용의 삶은 일제강점기, 해방기, 한국전쟁 등 우리 역사와 삶을 맞대고 있었다. 개인의 삶을 조명하던 작품은 그들

의 삶에 개입한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실들에게까지 가 닿았다. 국가의 공권력과 제도가 개인의 삶에 끼친 영향을 깊이 있게 성찰하면서도 웃음과 유머를 놓지 않는 <알리바이연대기>, 남명렬은 그 출발선에 있는 김태용을 연기했다.

남명렬이 재창조한 김태용의 알리바이

<알리바이연대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남명렬은 김태용이 되어 말했다. 굳이 이렇게 힘주어 말하는 이유는 그가 연기한 김태용의 실감이 굉장했기 때문이다.

“가족들은 재엽이 아버지가 나온 줄 알고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이 보기에다 생전 아버지의 느낌이 너무 잘 드러났다고... 그래서 많이 울었대요. 돌아가신 남편, 아버지, 숙부의 모습을 무대에서 보게 되니까.”

일제강점기,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으로 건너 온 김태용은 살아생전에 다른 나라 말로 된 책을 사 모으며 한국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경계인의 삶을 견뎠던 인물이다. 평생을 평범한 고등학교 영어 선생으로 살았지만 내면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던 김태용 씨

의 이야기를 들으며, 남명렬은 끊임없이 인물의 내면을 자맥질했다.

“연습 과정에서 재엽이가 자연스럽게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을 이야기 해줬어요. 다양한 에피소드를 이야기 해 줬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를 계속해서 생각했죠. 그러다보니 그의 성격과 행동패턴이 조금씩 주어졌어요. 내가 일부러 뭘 하려하지 않아도 저절로 체화된 것 같아요. 나에게 딱 맞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실감이 났죠.”

남명렬은 김태용을 설명하며 그의 눈빛과 행동을 그대로 재현했다. 천천히 옷을 타는 손짓과 한 곳을 오래 더듬는 눈동자, 말과 말 사이의 긴 여백과 유보하는 화법... 김재엽 작가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절로 그렇게 된 것 아니겠냐고 말했지만, 우리는 누구나 안다. 허구의 인물을 새롭게 만들어 연기하는 것 보다, 실재했던 인물을 존중하며 재창조하는 작업이 더욱 까다롭다는 사실을.

인물의 이야기를 듣고 그 내면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되, 사소한 행동과 인상에는 자신의 해석을 더해 만든 남명렬의 김태용. 그가 다시 쓰는 김태용의 알리바이가 기대를 모은다.

자신을 향한 엄격함이 관객이 느끼는 감동으로

남명렬은 무대에 오르기까지 스스로에게 무수한 의심을 던져야지만 관객에게 확신과 감동을 줄 수 있다고 믿는 배우였다.

“전 의심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 세상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배역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저 자신에 대해서도 늘 의심해요. 하지만 그 의심이 어느 정도가 되면 확신이 서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철저히 믿죠. 믿지 않으면 다른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의심하는데 어떻게 관객을 믿게 만들겠어요?”

자신은 이토록 철저하게 무대를 준비하면서, 자신의 연극을 보러 오는 관객을 향해서는 단지 이렇게 말했다.

“연극은 그냥 ‘재밌게 한 편을 즐기고 싶다’는 생각만 가지고 오는 거

예요. 각자 나름대로 보는 거지,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봐달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드는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보는 사람도 그 뜻을 따르면 좋은 거지만 생각이 다르다면 더 노력하면 돼요. 각자대로.”

자신이 나름의 고유한 믿음을 가지고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듯, 객석의 관객들도 자기 나름의 생각대로 자유롭게 연극을 즐기기를 바란다는 그의 말이 오래 남았다. 하지만 서로 다른 개인일 뿐인 배우와 관객이 하나의 공감으로 묶이는 순간이 분명히 있다. 모두를 그 순간으로 이끄는 것은 무수하게 자신을 다져 온 배우 한 사람일 것이다. **이대면**



서양 미술의 원천, 그리스 미술

라오콘 군상 (BC 2세기경, 로마 바티칸박물관)

폴리스, 그리스인들 삶의 공동체

고대 그리스는 작은 섬 여러 개와 높고 험한 산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처음 그리스는 촌락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씨족과 부족 중심의 사회였지요, 그리스는 농사짓기에 적합한 지형이 아니었습니다. 식량 조달이 자체적으로 어려웠던 그리스는 바깥세상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물건을 사고파는 무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기원전 800년경 그리스는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외부의 적들로부터 안전하게 삶의 터전을 지켜야 했습니다. 촌락 중심 사회의 해체와 도시 국가의 성립은 자연스레 진행

되었습니다. 그리스의 대표적인 도시 국가 즉, 폴리스는 아테네와 스파르타였습니다. 도시 국가는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을 뜻하는 아크로폴리스는 신들의 공간이었습니다. 신전이 자리한 이곳은 신성한 땅이었습니다. 한편 언덕 아래, 아고라에는 시민들의 광장이 펼쳐졌습니다. 아크로폴리스에서 군사와 정치에 관한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진 것에 비해, 아고라에서는 시교와 교환이 이루어졌지요. 이곳에서 시민들은 상업 활동을 벌이고, 철학자들은 사상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의 대표적 폴리스 아테네는 기원전 5세기 중엽 상공업과 해상 무역을 바탕으로 번영을 이룹니다. 경제적인 풍요로움은 그리스가 민주 국가로 성장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6세기 아테네에는 솔론, 클레이스테네스 등 그리스 민주주의 발달의 주역들이 잇따라 출현하였습니다. 몇몇 사람이 통치의 책임을 맡는 게 아니라 시민 모두 골고루 나누어 맡으므로, 이를 민주주의라 부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테네 민주정치의 전성기를 가져 온 페리클레스가 등장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재산 정도에 따라 정치 참여권이 주어졌습니다. 비밀 투표를 통해 사회의 위험인물을 해외로 추방할 수도 있었지요, 또한 시민 모두가 회의에 참여해 국가의 일을 다수결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는 정말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였던 것일까요.

시민의 조건, 인간의 조건

기원전 800년경부터 그리스인들은 인물 조각을 만들어 왔습니다. 조각상의 용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신상이라고 여겨지기도 하고,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죽은 자를 위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추정되기도 합니다.

조각 중에는 소녀상 '코레'도 있고, 소년상 '쿠로스'도 있습니다. 소녀와 소년 조각은 정성껏 손질한 듯 보이

는 머리 모양이 세심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입 꼬리가 살짝 올라간 채 웃고 있지요, 어색해서 순진해 보이기도 하는 이런 '아르카익 스마일'을 소년, 소녀 모두 머금고 있습니다. 차이점도 있습니다. <페플로스의 코레>에서 보듯 소녀는 옷을 입고 있지만 <아나비소스의 쿠로스>와 같은 소년은 그렇지 않습니다. 코레와 쿠로스 뿐 아니라 그리스 미술에는 남성의 누드가 여성의 나체보다 수적으로 많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프라타고라스의 말처럼 그리스는 철저히 인간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인간은 학문의 본질이자, 선함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그리스인들은 건강한 육체를 숭배했고, 근육이 잘 발달된 몸에서 인간의 위대함을 확인하고자 했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스인들이 그토록 존중했고 또 찬양했던 인간은 남성이었습니다. 남성 중심 사회였던 그리스에서 여성은 불완전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남성의 누드가 운동으로 잘 단련된 건강한 육체로 이해된 것에 비해 여성의 나체는 오히려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릴 위험 요소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스 사회에서 정치 참여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시민이자, 세상의 중심인 인간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남성에게만 주어졌던 것입니다.

현재를 누려라

제한적 민주주의였지만, 그리스 사회의 경직성은 그 과정에서 완화되었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자유로워진 것이었지요. 이제 그리스인들은 눈앞의 현실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미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미술은 변화하는 일상을 포착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두 팔을 몸통에 꼭 붙인 채 정면을 응시하는 코레, 쿠로스와 같은 형식의 조각들로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금방 지나가는 순간을 담아내기 위해 그리스 미술은 좀 더 자연스러운 동작, 좀 더 사실적인 표현을 위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왼) 아크로폴리스의 페플로스 코레 (BC530년경)
(오) 아나비소스의 쿠로스 (BC525년경)



원반 던지는 사람

누드의 운동선수를 모델로 삼고 있는 미론의 〈원반 던지는 사람〉은 그런 변화를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스에서 운동 경기는 매우 신성한 행위였습니다. 달리기, 권투, 전차 경주 등, 경기에 입하는 선수들은 직업 선수가 아니라 가문의 명예를 빛내기 위해 선발된 명문가의 자제들이었습니다. 당대의 미술가들은 경기에 참가한 청년들의 빛은 몸을

보고 인체 비례와 움직임을 연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체의 부분과 전체를 유기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부단한 노력이 계속되었습니다. 활처럼 휘어진 팔과 굽힌 다리, 청년의 상체와 하체를 정확한 비례를 토대로 역동적으로 표현한 〈원반 던지는 사람〉도 이런 과정에서 성취된 조각이었습니다. 동작과 정지, 긴장과 이완의 팽팽한 긴장이 발끝까지 깃든 청년의 모습에서 곧 일어날 사건이 상상의 나래를 펼쳐집니다.

현재의 생활에 주목하여, 그리스인들이 발견한 것은 현실의 본질이었습니다. 현실 속 개인들은 늘 위대하거나 항상 평균 이상의 고귀함을 간직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사소함과 평범함, 추함과 소란스러움이 사건으로 뒤영겨 있는 일상은 숭고함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렇게 발견한 현실이 사실적으로 미술에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꽃미남 일색의 그리스 미술에 땀살이 늘어난 추남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위대한 인간, 운명에 맞서다

그리스 사회의 안녕과 안정을 뒤흔든 것은 전쟁이었습니다. 페르시아와 그리스,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두 차례 군사적 충돌을 했지요. 전쟁으로 그리스 사회가 혼란에 휩싸인 동안 힘을 키운 것은 그리스 북부 마케도니아였습니다. 이후 마케도니아는 그리스의 폴리스들을 집결시켜 동방 원정을 나서게 됩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절제와 조화의 그리스 미술은 불안과 고통, 긴장과 걱정의 감정을 더하기에 이릅니다. 전쟁은 평온한 일상이 전개될 때와는 달리 불안정한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니까요.

사회적 혼란기 그리스 미술은 드라마틱한 인간의 감정에 주목했습니다. 죽음을 다룬 〈라오콘 군상〉과 같은 조각처럼 말입니다. 이 조각은 1506년 1월 옛 로마 황제의 궁전 터 포도밭에서 한 농부가 발견 한 후 대대적인 발굴 작업을 거쳐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발굴에는 르네상스의 천재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참여했지요. “이것은 예술의 기적이다.” 조각의 일부가 땅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자 예술에 대해 엄격한 평가로 유명한 그도 이렇게 감탄했다는군요. 〈라오콘 군상〉은 기원전 100년 쯤 그리스의 조각가 아테노도로스, 폴리도로스, 하게산드로스가 함께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높이 240 센티미터에 달하는 조각의 압권은 사실적인 표현입니다. 라오콘은 신의 뜻을 저버린 트로이의 신관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형벌이 내려집니다. 두 아들과 함께 아주 천천히,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형벌이었지요. 신의 뜻에 따라 세 사람의 숨통을 커다란 독사 두 마리가 조금씩 죄어 오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것은 근육이 뒤틀어지고, 혈관이 튀어나온 육체만이 아닙니

다. 비극이 예견된 처참한 운명 또한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극한의 고통을 담고 있는 〈라오콘 군상〉에서 드러나는 것은 죽음의 끔찍함이 아닙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운명에 맞서는 인간의 위대함입니다. 죽음의 순간이지만 인간 본연의 존귀함을 잃지 않으려는 주인공들의 의연함에서 비롯된 위대함이지요. 〈라오콘 군상〉은 그리스 미술의 정수라 후대에 평가를 받습니다. 육신의 고통에 절망하지 않고, 정신의 힘으로 맞서고 있는 〈라오콘 군상〉이 인간의 위대함을 이상적으로 구현해 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험에 어긋난 미술은 설득력이 없다

그리스 미술가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표현했습니다. 배운 것을 토대로 미술을 했던 이집트인들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었지요. 개인이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이 그리스인들에게는 중요했습니다. 미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림이든, 조각이든, 건축이든 보는 이들의 경험에 비추어 설득력을 잃지 않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이 누가 보더라도 보편 타당한 형상을 만들기 위해 고심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리스 시대 도자기에 그리기는 산업으로 번창했습니다. 보통 화병으로 불리던 도자기의 용도는 술이나 기름을 담은 용기였습니다. 그리스의 회화의 뛰어난 수준은 화병 그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사의 작별〉도 이런 화병 그림 중 하나입니다. 갑옷을 입은 전사가 막 전쟁에 나가려는 순간을 도자기 표면에 그려져 있습니다. 출전을 앞둔 젊은 아들 양옆으로는 부모가 자리하고



전사의 작별 (B.C510~500년경)

※ 정정합니다

2014년 여름호 11p 사진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라스코 동굴 벽화 (X) — '이집트 사자의 서, 피피루스, 기원전 1285년경, 런던 대영박물관소장 (O)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화병 그림 중앙에 위치한 청년의 발 표현입니다. 오른쪽 발은 옆에서, 왼쪽 발은 앞에서 본 모양입니다. 정면을 향한 발가락을 다섯 개의 작은 원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같은 손가락이라도 족 뺨을 때와 접었을 때 길이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물건이라도 비스듬하게 놓였을 때 훨씬 짧아 보인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요. 그런가 하면 거대한 산상의 머리도 아래서 우러러 보면 작아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개인의 경험을 통해 습득한 것들이었지요, 그리고 눈으로 본 것을 있는 그대로 미술에 적용하고자 다양한 고민을 했지요. 그리스 미술가들이 추구했던 것은 '사실적인 미술, 더 사실적인 미술'이었습니다. 감각으로 포착한 변화무쌍한 현실을 설득력 있게 드러내고자 그리스 미술은 서양 미술의 원천으로, 회귀해야 할 이상향으로 후대에 다시 호출됩니다. **이동아**

글 공주형

미술평론가,
인천대학교 초빙교수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박사급 학위논문으로 박사 학위 취득, 2001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등단, 저서로는 〈사랑한다면 그림을 보여줘〉, 〈책 끝 없는 세상은 너무 심상해〉, 〈천재들의 미술 노트〉, 〈착한 그림 선한 화가 박수근〉, 〈미술시간에 가르쳐 주지 않은 101가지〉, 2010 ~ 현재 인천대학교 초빙교수

배우들 캐릭터에 생명력을 입히다

무대의상디자이너 정경희

글 김지숙 사진 유창호

정경희는 1980년대 무대 의상 캐릭터 드로잉을 처음으로 선보였던 디자이너다. 우리나라 테마파크에서는 공연 의상의 독보적인 존재로 통했다. 영화로 직업무대를 옮긴 이후엔 대중상 의상상을 세 번이나 수상해 명성과 실력을 인정받았다.

여전히 열정적인 그녀의 이야기다. 얼마 전 영화 '역린'의 인기가 뜨거웠다. 이 영화에서 정경희는 의상을 담당해 시선을 끌었다. 정조의 흰 곤룡포와 혜경궁 홍씨의 녹빛 당의, 정순왕후의 붉은색 한복과 궁녀들의 의상까지……. 무대의상으로 관객을 매료시키는 그들 그가 사는 동네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첫 만남인데도 음식과 차를 챙겨주는 실용한 민모에 호감이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첫 번째가 작품이었다면 두 번째는 인간적인 민모에 매료되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그와 음식을 나누며 따뜻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연극 불멸의 처 (2008.4.11) 의상디자이너

연극 맥베스 (2008.11.29) 의상디자이너



배우들이 선호하는 의상디자이너

지난 몇 해 동안 인천시립극단에서는 불멸의 처, 맥베스, 햄릿, 파우스트, 리어왕 등 많은 작품을 무대에 올렸다. 이 작품들 속 의상에는 정경희의 손길이 녹아있다.

“무대의상은 대본에 나와 있는 역할이나 인물의 심리, 상황과 시간대까지 주변의 모든 것을 고려하죠. 의상 자체만 돋보여서는 안 되고 작품과 잘 어우러져 그 속에 옷이 녹아들어야 하거든요.”

그의 말처럼 캐릭터를 고려하지 않은 의상은 몰입도가 떨어지고 배우도 예민해지기 마련이다. 그런 면에서 그는 배우들이 불만을 갖지 않는 의상디자이너로 유명하다. 무대의상의 경우 조명을 받지 않아 가려지는 부분도 많다. 그만큼 디테일한 면이 부족한 것이 통상이다. 하지만 그는 작은 것 하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꼼꼼히 손을 보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인천시립예술단원들의 의상을 책임지고 있는 유숙희 씨에 따르면 그 이유에 대해 고개가 끄덕여진다.

“많은 의상실과 함께 일을 해보았지만 정 선생님만큼 확실한 분은 흔치 않아요. 선생님 작품은 처음 봤을 때부터 반할 정도였으니까요. 인간적이고 털털한 면이 있으신 반면 작품을 하실 때는 매우 정확하시죠. 개인적으로 함께 작업을 해보고 싶을 만큼 매력적인 분이세요.”

연극무대와 테마파크 공연의상

그는 미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무대의상학을 전공했다. 학창시절 전공과목에서 해보았던 염색과 염색한 천이 하늘에 날리는 풍경을 보면서 무대 위 천들을 상상했다. 독일유학 당시에는 연극반을 찾아가 무대에 오를 배우들의 분장과 의상을 담당하며 무대의상디자이너로서의 길을 다져 나갔다. 그러다 1987년 연극 ‘도망증’이라는 작품으로 동아미술상을 받으면서 예술의 전당 내 ‘서울예술단’과 국립극장 공연과와 인연을 맺는다.

“미대를 나왔지만 패션 일러스트는 아니니까 처음 대본을 받았을 땐 위축되더라고요. 당시에는 무대 의상 드로잉도 정리가 안 된 시기였죠. 대본의 지문만을 보고 캐릭터 의상을 그려보였는데 ‘아, 이거야’라며 사람들이 감탄을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미술을 전공한 덕분에 그는 크기나 치수에 대해 남들보다 민감한 시선을 갖고 있었다.

“예를 들어 옷을 보면 변별이 생기면서 인간공학적으로 보게 돼요. 각도와 도면으로 접근하고 표현하니까 그 디테일에 사람들이 놀라더라고요. 실루엣뿐 만 아니라 그 안의 것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었죠.”



색을 보는 안목도 그의 눈을 통하면 달라진다. 극의 내용과 무대에 오를 수많은 인물의 특성이 모두 고려되기 때문이다.

“무대를 캔버스라 생각하고 무대 안의 통일성을 봐요. 액자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균형을 보죠. 움직임에 따라 색을 반영하고 주인공을 살리기 위해 주인공의 뒷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요. 그것이 훈련된 강점이에요.”

그는 극단의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30대 후반까지 우리나라 공연계를 이끌었던 연극계 거목들과 함께 일하며 무대의상 드로잉에 대한 기준을 확고히 세웠다.

이후 1989년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테마파크의 시작을 알렸던 롯데월드가 개장하면서 롯데월드 공연부 디자이너로 8년 동안 활동을 이어나간다.

“롯데월드 자체 내 뮤지컬 전용극장 인원이 398명이었어요. 밴드부만 120명에 퍼레이드도 엄청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인원을 혼자서 감당했어요.”

일량을 생각하면 힘들 법도 하지만 그는 오히려 그 기간이 색을 테스트 할 수 있었던 기회이자 실험무대였다고 말한다.

“원래 원색으로 표현하는 의상을 좋아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테마파크에서는 공연 의상인데다 관객에게는 한 번뿐인 무대라는 점을 감안해 인상적인 무대의상을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그만큼 무난한 색보다

는 원색을 많이 사용했던 시간이었죠.” 테마파크와의 인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용인자연농원(현 에버랜드)’과 1995년 개장된 대구의 ‘우방타워랜드’에서도 의상을 담당했다. 이쯤 되면 그를 테마파크의 상디자이너의 원조라 해도 과언은 아닐 듯싶다.

영화와의 만남 그리고 일하는 손

자신의 작품을 느긋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영화는 그에게 색다른 매력을 안겨줬다.

“무대에서 시간에 쫓기다보니 작업한 사진 한 장 없더라고요. 옷매무새를 고쳐주느라 공연조차 못 볼 때도 많았고요. 숨을 고르고 싶었달까요. 지인으로부터 대본 하나를 받아 그날로 바로 사표를 냈어요.”

하지만 테마파크를 그만둔 후 만난 첫 번째 영화는 작업 환경이 열악해 끝을 맺지 못했다. 그리고 이어 찾아온 두 번째 영화에서 그는 우리나라 오리지널 한복을 그대로 만들어 선보였다.

“사업체를 내고 배창호 감독님의 ‘정’을 함께 했어요. 이 영화의 의상을 담당하며 영화작업에 대한 매력에 푹 빠지게 됐죠.”

이후 그는 ‘조선미녀삼총사’, ‘나는 왕이로소이다’, ‘혈투’, ‘방자전’, ‘음란서생’, ‘아홉살 인생’, ‘YMCA야구단’ 등 영화마다 눈길을 사로잡는 의상을 선보여 매번 찬사를 받았다. 관객을 사로잡는 그만의 비결을 물었다.

“의상을 위한 원단을 구입할 때 남들의 열매를 사요. 원단을 종이라고 생각하죠. 색과 디자인에 맞는 천을 선택하고 예산이 안 되면 직접 염색을 해서 원하는 색의 천을 얻어요.” 노하우와 실력 외에도 작품을 향한 열정과 손끝을 아끼지 않는 그녀의 다음 무대가 진심 기대된다.

이은미

스타지 149 연극선집 2

INCHEON
CULTURE & ARTS
CENTER



20th
Anniversary

알리바이 연대기

작·연출 김재엽

★★★★★

2013 제50회 동아연극상 작품상, 희곡상, 연기상
2013 제6회 대한민국연극대상 연기상, 무대미술상
2013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올해의 연극 베스트3
2013 월간 한국연극 공연베스트7

출연 | 남명렬, 지춘성, 전국향, 유준원, 유병훈, 정원조, 백운철, 이종무

관람료 | 전석 2만원(사랑티켓 1만3천원) 관람연령 | 14세 이상

예매처 | 회원홈페이지, 사랑티켓(www.sati.or.kr), 엔티켓 1588-2341, 인터파크 1544-1555

문의 | 회관 032)420-2731, 사랑티켓 032)872-28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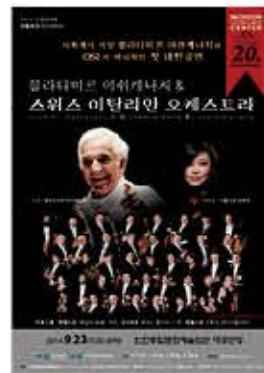
2014. 9. 26금-27토

금 19:30 | 토 15:00, 19:00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 & 스위스이탈리안오케스트라 내한공연

공연일시 : 2014년 9월23일(화) 오후 8시
 공연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연 주 : 지휘_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 피아노_카롤리네 되르게,
 스위스이탈리안오케스트라
 관 랑 료 :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
 예매문의 : 종합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유료회원 032)420-2000),
 엔티켓 1588-2341, 인터파크 1544-1555
 관람연령 : 8세 이상



2014년은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와 더불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20주년을 기념하는 뜻 깊은 해로 스위스 이탈리아어권을 대표하는 스위스이탈리안오케스트라(OSI)가 인천에서 첫 내한공연을 갖는다.

이번 공연은 현존하는 '피아니스트계의 전설'이자 '지휘계의 거장'인 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가 80년 전통의 스위스이탈리안오케스트라를 지휘한다. 협연으로는 세련되고 수준 높은 연주로 유럽에서 각광받는 피아니스트 카롤리네 되르게가 함께 한다.

PROGRAM

멘델스존 <핑갈의 동굴> | 서곡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 | 멘델스존 교향곡 4번(이탈리아)

*프로그램 및 출연진은 상황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지휘계의 거장 “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와 스위스이탈리안오케스트라의 역사적인 첫 내한공연

라흐마니노프의 절대적인 해석으로 현존하는 피아니스트의 전설로 불리는 “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는 피아니스트로서의 명성만큼 지휘자로서의 거장으로 불린다. 체코필하모닉, NHK심포니, 필하모니아, 시드니심포니 등의 유명오케스트라와 함께 내한한 바 있다. 이번 내한공연에서 이탈리아를 인상하게 하는 멘델스존 교향곡 4번(이탈리아)은 이탈리아를 가장 잘 아는 스위스이탈리안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더욱 기대를 모은다. 모차르트의 걸작인 피아노협주곡 21번은 피아니스트 카롤리네 되르게의 세련되고 화려한 기교와 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의 음악적해석이 클래식애호가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스위스이탈리안오케스트라(OSI) 스위스 이탈리아어권을 대표하는 오케스트라

'스위스이탈리안오케스트라'는 '스위스 속 이탈리아'라고 불리는 스위스 루가노에서 활동하는 연주 단체로 이탈리아어권인 티치노(Ticino)

주와 스위스라디오방송국(RSI)의 지원을 받고 있다. 1935년 '몬테 네리 라디오 오케스트라'라는 명칭으로 루가노에 설립되었고, 1940년 이후 부터는 루가노와 로카르노, 아스코나 등 유명 페스티벌에 참가하였으며, 이후 탁월한 연주력으로 페스티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1938년부터 이탈리아 출신의 지휘자 오토마르 누시오가 상임지휘자로 취임하여, 1968년까지 30년간 역임하였다. 1969년부터 1991년까지 스위스 취리히 출신의 지휘자 마르크 안드레예가 상임지휘자로 활약하였다. 그는 방송교향악단 레파토리의 다양화와 주요 현대작곡가의 초연으로 관객들에게 큰 찬사를 받았다.

1991년에는 오케스트라의 명칭을 현재 OSI로 변경하였으며, 비엔나, 암스텔담, 상트페테르부르크, 파리, 밀라노와 잘츠부르크 같은 도시의 가장 권위 있는 음악 홀에서 연주하며 국제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하였다. 1999년에는 프랑스 출신의 지휘자 알렉스 롱바르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러시아 출신의 지휘자 미하일 플레트네프를 상임 객원지휘자로 임명하여 오케스트라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재민**

스테이지149 - 연극선집2

알리바이연대기



공연일시 : 2014년 9월 26일(금)~27일(토)

금요일 오후 7시30분 / 토요일 오후 3시, 7시

공연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관람료 : 전석 2만원(사랑티켓 1만3천원)

예매문의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유료회원 032)420-2000,

사랑티켓, 엔티켓 1588-2341, 인터파크 1544-1555

관람연령 : 만13세 이상



★★★★ 2013년 대한민국 연극계를 뜨겁게 달군 秀작의 앙코르 공연!!

2013 (재)국립극단 "젊은 연출가전" 지원작

2013 동아연극상 작품상, 희곡상, 연기상 수상

2013 대한민국연극대상 연기상, 무대예술상 수상

2013 올해의 연극베스트3(한국연극평론가협회) 선정

2013 공연베스트7(월간 한국연극) 선정

아버지와 두 아들의 개인사, 한국 현대사와 만나다.

다큐멘터리 형식의 연극 <알리바이연대기>는 작·연출을 맡은 김재엽의 실제 아버지 김재용과 두 아들 재진, 재엽의 개인사와 가족사에 근거하고 있다. 193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굴절의 한국현대사에 얽힌 평범한 한 개인의 사적 연대기를 바탕으로 그 사이를 파고드는 역사의 순간들을 정밀하게 조명하며 한국 현대사의 알리바이연대기를 추적한다. 부당한 권력이 자신의 부조리함을 은폐하기 위해 끊임없이 알리바이를 생산해 온 현대사를 관통하면서 개인 역시 자신의 삶에 대한 알리바이를 만들어왔다는 깨달음을 제시한다. 그리고 현재도 '알리바이'의 필요성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드러낸다.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로 관객들의 공감을 끌어낸다.

2시간 20분 남짓의 긴 공연시간이 전혀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 희곡과 연출의 힘도 크겠지만, 배우들의 설득력 있는 연기가 큰 몫을 하고 있다. 생생하게 인물의 성격을 구축한 배우들의 연기가 매우 안정적이다. 특히 '중간의 삶'을 살면서도 사회에 부대끼는 인물의 복합적인 성격을 세심하게 표현하는 아버지 역을

맡은 남명렬의 연기가 작품의 무게중심을 잡고, 그 외 1인 다역으로 희극적 이완을 능숙하게 보여주는 지춘성을 비롯한 몇몇 배우들의 연기 또한 매우 인상적이다.

결국 인간의 삶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죽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작설화법이 요구되는 시대에 우화를 꾸며내기보다는 '연극이 아니어도 좋은 연극'을 만들고 싶었다"는 작가의 말대로 이 작품은 신화 속에서 꿈꾸기보다는 역사 속에서 싸우기를, 예술이라는 타이틀로 포장하기보다는 인문사회과학의 사유로 발가벗겨지기를 소망하고 있다. 젊은 연극인답게 역사와 정치의 화두에 대한 관심이 높다. 작가는 빈민뿐 아니라, 행동해야 할 지식인에 대한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꼬집고 있다. 작품 속에서 아버지가 젊은 시절 아끼던 구절인 셰익스피어의 『햄릿』의 대사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가 던진 삶의 화두는 결국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죽느냐'의 문제로 발전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관객들 앞에 의미 깊은 질문을 던진다. 결코 가볍지 않은 주제를 다루면서 연극은 배우들의 진정성 있는 연기로 시종일관 웃음과 따뜻함을 잃지 않으면서 결국 평한 울림을 전달한다. **이종민**

스테이지149 - 연극선집3

2014 대한민국 연극계를 뜨겁게 달굴 신작!!

투명인간



공연일시 : 2014년 10월 31일(금) 7시 30분

11월 1일(토) 오후 3시 30분

공연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관람료 : 전석 2만원(사랑티켓 1만원3천원)

예매문의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유료회원 032)420-2000)

사랑티켓, 엔티켓 1588-2341, 인터파크 1544-1555

관람연령 : 만13세 이상



★★★★★ 2014년 대한민국 연극계를 뜨겁게 달굴 新작!!

★★★★★ 남산예술센터·대전예술의전당·국단 등 공동제작!!

남산예술센터·대전예술의전당·국단 등이 공동제작하여 2014년 가을 첫 선을 보이는 <투명인간>은 동시대 작가인 손흥규의 단편소설을 원작으로 연출가 강랑원이 새로운 연극언어로 각색·연출한 신작이다. 2014년 대한민국 연극계를 강타할 신작으로 신선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화제작을 서울공연에 이어 바로 인천에서 만나볼 수 있다.

투명인간 놀이를 하다가 진짜 투명인간이 된 가족이야기

아버지의 원 세 번째 생일날. 어머니와 딸 그리고 주인공 아들은 생일 케이크를 앞에 두고 아버지를 기다린다. 누군가 장난삼아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척하자' 는 재안을 한다.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소리가 들리자 세 사람은 재빨리 케이크에 불을 붙이고 전등을 끈다. 아버지는 어둠 속에 앉아 생일상을 기다리고 있는 식구들이 반갑다. 더구나 서프라이즈를 위해 투명인간 놀이를 하는 그들이 있어 행복하다. 그렇게 연극 속의 연극이 농담처럼 시작되는데 ... 세 사람의 연극은 시간이 지나도 멈추지 않는다. 아버지는 서서히 지쳐가고 결국 이 상황이 놀이가 아니라 현실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한다. "진짜로 내가 보이지 않는 건 아닐까?" 보이지 않는다는 건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뒤늦게 가족들은 놀이를 멈추려고 아버지를 찾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이제 아버지의 눈에 식구들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이다. 연기라고 하기엔 너무나 진짜 같고 완강하다. 아버지는 어딘가에 전화를 걸어 "집에 아무도 없어. 식구들이 사라졌어.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라며 울기 시작한다.

아버지의 부재라는 시대적 담론을 넘어 현대사회 속 관계의 부재를 드러낸다.

가족끼리 장난으로 시작했던 투명인간 놀이가 결국 놀이를 넘어 현실의 비극을 폭로하게 되는 과정을 그리는 이 작품은 현실과 놀이, 가장(假裝)과 실제의 아슬아슬한 경계와 그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을 무대화한다. 연극의 시작은 회극의 전형적인 상황으로 코믹하게 시작하지만, 아버지가 진짜 투명인간이 되어버리면서 혼란스러워진다. 투명인간으로 가장하는 놀이의 규칙이 깨지면서, 가장과 진짜가 구분되지 않는다. 떠올려보라! 종종 장난처럼 시작된 놀이에 깊게 빠져들면서,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경험을 하지 않는가. 그때 마주하고 싶지 않은 진실과 마주치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진실이 드러난다.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는 것, 조금씩 지워가는 것, 아버지의 부재라는 담론을 담고 있지만, 결국 이 작품은 아버지의 부재라는 담론을 넘어 관계의 부재, 즉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민간의 소외와 고독을 돌아보게 한다. **이성민**

스테이지149 - 연극선집4 칼로막베스

공연일시 : 2014년 12월 5일(금) 오후 2시30분, 7시30분

12월 6일(토) 오후 3시

공연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관람료 : 전석 2만원

예매문의 : 화관 홈페이지(유료회원 032)420-2000)

엔티켓 1588-2341, 인터파크 1544-1555

관람연령 : 만 7세 이상



마방진의 <칼로막베스>는 역동적이고, 힘이 있으며, 한국인의 시각에서 원작을 재해석한 것이 흥미로웠다.
(영국 극단 디렉터, 작가 시라 아젠트)

고선웅 연출이 전가의 보도처럼 고수하는 연출기법이 <칼로막베스>에서도 충실하게 반영된다. 원칙이란 이런 것이다. "마방진은 끊임없이 드라마를 비틀어 관객의 기대를 빗나가게 한다. 그것이 관객을 무대에 집중하게 하는 방법이다. 서사극처럼 관객을 끊임없이 이화(異化)시킴으로써 오히려 동화를 모색한다." <칼로막베스> 공연장에서 관객들은 이 원칙의 포로가 되어버린다.
(연합뉴스 강일중 기자)

<칼로막베스>의 결말은 원작 "맥베스"를 답습하지 않고 변용한다. 설사 맥베스가 "맥베스"의 길을 오롯하게 답습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칼로막베스>의 결말은 처절하리만치 nihil리즘을 대변한다. 폭력의 화약고 안에서 캐릭터들이 살아남는 길은 칼로 대변된다.
(칼럼니스트 박정환)

셰익스피어 「맥베스」를 원작으로 한 신개념 무협 액션극!!!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맥베스」가 스타일리쉬한 무협 액션극으로 변신했다. <칼로막베스>는 연출가 고선웅이 극공작소 마방진(이하 마방진)의 배우들과 보름간의 합숙 그리고 5개월간 연습을 통해 얻은 작품이다.

봉건 영주시대의 쿠데타를 소재로 한 원작과 달리 <칼로막베스>의 시대적 배경은 한국적인 미래상황을 넣어 각색했지만 원작에 담겨있는 인간의 욕망과 원시성은 그대로 재현된다.

원작 속 전쟁과 살인 등의 폭력성을 역동적인 칼싸움을 통해 표현했으며, 원작의 이름은 그대로 차용해 관객들의 이해를 돕는다. 맥베스의 사정없는 칼부림은 원작에 비해 더욱 극대화된 폭력을 담고 있으며 그로 인한 속도감과 긴장감을 오롯이 보여준다.

자칫 과잉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몸짓과 말들은 잘 훈련된 배우들의 정교한 합과 치고 빠지는 적절한 속도는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균형을 잘 잡고 있다. 맥베스를 유혹하는 마녀들은 맹인술사로 바꾸고 맹인술사와 대비되는 노승을 등장시켜 한국적 정서를 가미했다. 또한 마방진표의 끊임없이 유머와 슬랩스틱을 섞어 맥베스의 무거운 느낌을 상쇄하였지만 진지한 비극성과 철학적 물음을 전지해내고 있다. 이처럼 끊임없는 에너지와 다이내믹한 역동성의 칼싸움이 <칼로막베스>의 강점이라 할 수 있다. **이종민**

SYNOPSIS

먼 미래, 범죄자들과 무정부주의자들이 끊이지 않는 현실을 보다 못한 정부는 거대한 수용소 세력계티베이를 짓는다. 불결한 혈통의 자연도태를 원했던 정부는 수용소에 있는 자들에게 칼 한 자루씩을 쥐어주며, 죽고 죽이는 피의 난장판 속에서 자멸하게 만든다.

그 와중에 맥베스는 백입등을 꾸다가 맹인술사로부터 보스가 될 것이라 예언을 듣는다. 그 예언을 들은 맥베스는 맥베스를 부추겨 보스인 당권을 죽인다. 뒤를 이어 보스가 된 맥베스는 방커도 죽여 후환을 없애지만 유폐에 시달린다.

좌책감으로 동유병에 걸린 맥베스의 처가 자결하고 맥베스는 맥다프의 손에 제거된다. 총을 든 새로운 죄수들이 폭력과 생존자 모두를 쏘아 죽이는 바야흐로 맥베스의 시대가 열리는데...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40회 정기연주회
마에스트로 시리즈Ⅲ

R. 슈트라우스 탄생 150주년 기념 연주

공연일시 : 2014년 10월 17일(금) 오후 7시30분
공연장소 :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관람료 :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예매문의 : 회관 홈페이지(유료회원 032)420-2000),
엔티켓 1588-2341



인천시립교향악단 2014년 코리아 마에스트로 시리즈3

한국의 지휘자를 재조명하다!

PROGRAM

R. 슈트라우스 '돈 주앙' Op.20 (R. Strauss Don Juan Op.20)

R. 슈트라우스 '4개의 마지막 노래' (R. Strauss Vier Letzte Lieder)

R. 슈트라우스 '장미의 기사 모음곡' AV.145, Op.59 (R. Strauss Rosenkavalier Suite AV.145, Op.59)

*프로그램 및 출연진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코리아 마에스트로 시리즈' 세 번째 무대 _ 마에스트로 정주영

올 해 동안 더 강력한 피아니스트들과 함께 돌아 온 '2014 피아노 앤 피아니스트', 금난새 예술감독의 시선을 사로잡은 연주자들로 무장한 '금난새의 선택'과 함께 차별화된 기회를 준비한 인천시립교향악단이 한국의 지휘자를 재조명하는 '코리아 마에스트로' 시리즈 그 세 번째 무대를 준비한다.

올해 총 3회가 계획된 '코리아 마에스트로' 시리즈의 주인공은 이동진, 유영재 지휘자에 이어 수원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로 활동하고 있고 차세대 지휘자로 각광을 받고 있는 정주영이다. 정주영 지휘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과 동대학원에서 정치용 교수와 음악의 본고장인 오스트리아 Salzburg Mozarteum에서 Dennis Russel Davies를 사사하였다. 러시아 프로코피예프 국제지휘콩쿠르와 일본 도쿄국제지휘콩쿠르에서 본선에 올라 St.Petersburg Capella Orchestra와 Tokyo Philharmonic Orchestra를 지휘하였고 Peter Gulke, Gunter Herbig 와 같은 독일 지휘계의 거장들의 마스터 코스에 참가하여 우수지휘자로 선발되어 연주 한 바 있다. 현

재, 한국영재교육원 오케스트라 지휘자, 중앙대학교 강의전담교수, 수원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로 재직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슈트라우스 탄생 150주년 기념 "네 개의 마지막 노래" _ 테너 김재형

이 곡은 슈트라우스가 2차 세계 대전을 겪고 전범으로 몰려 감옥에 갇히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노년에 자신의 삶을 마감하며 쓴 곡이다. 그의 거의 모든 곡은 소프라노였던 아내 아멜리아에게 헌정되었다고 하는데 이 곡 또한 마찬가지이다. 테너 김재형은 '이렇게 소프라노를 위하여 만들어진 곡을 부르기 위하여 독일에 계신 제 은사 Karl Markus 교수님과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곡은 소프라노를 위한 곡으로 인식이 고정되어 있으니깐요, 하지만 선율이나 가사 내용을 연구하면서 꼭 소프라노가 해야만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고 소프라노가 꼭 이 곡을 불러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게끔 하고 싶었지요.'라며 선곡의 이유를 밝혔다. 슈트라우스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고자 하는 마음과 성악가로서 테너의 소리를 좀 더 다양하게 연구하려는 실험 정신이 이 연주회를 통해 잘 드러났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동진**

공연일시 : 2014년 11월 14일(금) 오후 8시
 공연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관람료 : 전석 2만원
 예매문의 : 회관홈페이지(유료회원 032)420-2000)
 엔티켓 1588-2341, 인터파크 1544-1555
 관람연령 : 중학생 이상 관람가

우주로 쏘아올린 락 에너지

갤럭시 익스프레스

세상의 모든 밴드
 밴드 데이

**BAND
 DAY**



〈밴드 데이〉는 매력적인 밴드 음악을 작은 소공연장에서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무대이다. 홀수 달에 한 번, 자신만의 확고한 세계를 구축한 밴드들의 음악을 때론 신나게, 때론 깊이 있게 조명하고자 한다.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며 자유로움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새로운 공연 문화를 지향한다. 밴드와 관객이 함께 호흡하고 열정을 불사르는 〈밴드 데이〉가 당신의 지루한 일상을 멋지게 변화시킬 것이다.

'탈진 록큰롤 밴드' 갤럭시 익스프레스

에너지폭탄 공연으로 정평이 나있는 갤럭시 익스프레스는 기타/보컬의 박종현, 베이스/보컬의 이주현, 드럼의 김희권으로 결성된 3인조 락밴드이다. 2006년 결성한 이들은 전염성이 강한 개러지 락, 펑크, 사이키델릭 사운드를 촘촘하게 엮어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곧바로 주목을 받았다.

2007년 발표한 EP "To the Galaxy"와 "Ramble Around"로 국내 평단과 팬들의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2008년 발표한 갤럭시 익스프레스의 정규 데뷔 앨범이자 더블앨범인 "Noise on Fire"는 많은 호평을 얻으며 2009년 한국대중음악상에서 "최우수 락 앨범" 상을 수상했다. 그 해 여름, 갤럭시 익스프레스는 한국의 인천펜타포트락페스티벌, 타이완의 Rock in Taichung(타이중 락 페스티벌), 프랑스의 Fête de la Musique(페트 드 라 뮓지크)에서 관객들을 열광시켰다.

갤럭시 익스프레스에게 2011년은 특별한 해였다. 한국대중음악상 "올해의 뮤지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3월에는 첫 번째 북미 투어에 올랐다. Canadian Music Week와 South by Southwest에서 공연을 하여 MTV가 선정한 아티스트 오브 더 위크에 갤럭시 익스프레스의 이름을 올려놓았다. 다시 참가한 2012년 SXSW 페스티벌에서는 하이라이트 10개 팀에 이름을 올리며, K-Rock 전성기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탈진 록큰롤 밴드'라는 별명에 걸맞게 이들의 무대는 늘 생생하다. 그들의 음악에선 개러지록이 보여줬던 날것의 퍼덕거림, 사이키델릭의 아찔한 몽환, 그리고 초기 뉴멕시코의 불온한 에너지가 장착되어 있다. 더불어 산울림과 송골매 등 국내 선배 뮤지션들 음악에서의 에너지도 느낄 수 있다. 이런 그들의 엄청난 식욕은 로큰롤이 보여 줄 수 있는 스펙트럼을 무한 팽창시킨다. 2014년 11월 14일, 겨울의 밤을 시끌벅적하게 가득 채울 준비는 이미 끝났다. **이재민**

밴드 데이

① 바람이 분다

© 최동인, 정혜진
http://net8net.blog.me

그랬다



입은 웃고 있었지만 몸은 마치 단단한 나무 같았다.
꽤 오랜 세월 그 자리에서 살아온 나무처럼...

팔은 녹슬어 붙어 버린 빗장처럼 풀리지 않을것 같았다.

난 음악을 듣는다.
난 서 있다.
난 팔짱을 끼고 있다.



음악이 별로여서?
아니다 음악은 넘치게 좋다.

요즘 유행하는 음악인가?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박수를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다...
음악은 바람처럼 불어왔지만
바로 앞까지 왔다가 되돌아 갔다.



바람이 불어오면
바람을 생각하지 말고
바람을 느껴봐~



인천시립합창단 140회 정기연주회

CREO

부평구립여성합창단 지휘자 윤 제 동

지난 6월 26일 인천시립합창단(예술감독 윤학원) 140회 연주로 전임작곡가 우효원의 <CREO>가 무대에 올려졌다. <CREO>는 '창조하다'의 라틴어로 성서의 창세기를 일컫는다. 사실 이번 연주는 2012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세 차례 연주되어졌으며, 궁극적으로 8월에 있을 IFCM 주최 10th World Symposium on Choral Music in Seoul(8. 7 ~ 13 국립극장, 예술의전당)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공연으로 국립극장 무대에 한 번 더 연주된다. 사실 한 작품을 매년 연주한다는 것이 흔치 않는 일인데, 그만큼 작품에 공을 들인 흔적이 역력하다.



<CREO>는 윤학원 예술감독이 1995년 인천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부임 후 모험적이며, 실험적으로 추진해 오던 한국적 합창음악의 맥을 이어오고 있으며, 박정선 작곡가의 <인천Mass>를 시작으로 2002한일월드컵을 기점으로 작곡된 우효원의 <아! 대한민국>과 퓨전국악합창 <메나리> 등과 함께 한국적 합창작품의 계보를 따르고 있으며,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위 작품들 모두 인천시립합창단이 '왜 강한가?'에 대한 답을 내놓은 걸작들이다. 합창단의 기량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콘텐츠의 창의성이 지닌 파급효과가 보편적인 기대보다 그 이상이었다. 특히 국내 합창단이 창의적이고 참신한 콘텐츠를 자체 제작해 공연하고 있는 현재의 흐름을 주도 했으며, 우수한 우리 음악의 세계화를 이끈 공로는 한국과 세계 합창계가 크게 공감하고 있다.

인천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부임 전 풍부한 국제 경험을 쌓아왔던 윤학원 감독은 합창의 본고장인 유럽과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매개는 바로 '우리의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 후 전임작곡가 제도를 국내 최초로 두어 오종찬 작곡가를 시작으로 지금의 우효원 전임작곡가와 함태균, 박정선, 박지훈, 오병희, 안효영 등과 함께 수십여 편의 한국적 합창 작품을 제작해 왔으며, 이를 세계무대에 선보여 한국합창의 세계화를 이끌었다.

국내 합창단 마다 유럽, 미국의 작곡가 곡들을 외국어로 연주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우리 작곡가들이 쓴 우리의 곡을 더 많이 연주하게 된 시작점이기도 하다.

<CREO> 역시 이러한 맥락으로 탄생했다. 다만 지극히 국악적이고



윤현원 인천시립합창단 예술감독

우효원 인천시립합창단 작곡가

파격적인 연주 형태의 무반주곡 〈메나리〉와 달리 우리 국악 안에 세계인들이 공감하는 성서의 내용을 담아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획했으며, 기존의 연주 방식과 동일하게 일정한 대열을 유지하는 것과 챔버오케스트라, 피아노, 대금, 타악기 등 다양한 악기 편성으로 이루어진 점은 〈메나리〉와 차별된다.

제목 그대로 〈CREO〉는 창세기의 천지창조 내용을 장엄하고도 화려하게 그려냈다.

우효원 작곡가가 직접 라틴어 성서에서 발췌한 텍스트에 현대 합창 기법과 국악적 요소를 융합해 한국적 정체성과 현대 합창음악의 큰 조류를 도입한 복잡한 형태의 작품이며, 공연 구성 역시 단일 합창공연치고는 오케스트라와 타악 등이 대거 동원된 블록버스터(Blockbuster)

급이다. 창세기 1장 1절 '빛과 어둠'으로 시작해 '혼돈(Chaos)', '말씀(Dixit)', '창조(Creatio)', '안식(Requies)', '완전함(Perfectus)'까지 전체 11악장 60여분이며, 특히 제1일부터 7일까지의 창조 장면을 섬세하면서도 드라마틱하게 담아냈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IFCM 세계합창심포지엄 때 세계인에게 선보일 작품으로써 여러가지를 고려하고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이 작품의 압권은 웅장한 합창 소리와 모듬북과 팀파니의 고동치듯 강렬한 퍼포먼스, 그리고 시종일관 국악과 양악의 경계에서 외줄을 타는 듯한 묘한 긴장감의 연속이다. 모듬북과 팀파니, 대금과 혼(horn), 정가(正歌)와 소프라노 솔로를 대칭적으로 구성해 마치 반으로 접으면 맞닿을 듯 포개지는, 같은 느낌 다른 얼굴의 이란성 쌍둥이를 보는 듯하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에너지 넘치는 합창단과 타악기의 사이에 수목화와 같이 단아하게 여백을 배운 정가와 대금의 연주가 단연 눈에 띈다. 특히 정제되고 구성된 정가의 소리는 관객의 시선을 끌만 했으며, 시조가 아닌 라틴어로 부르는 모습도 이색적이다.

전체적으로 최정상 합창단답게 작품의 해석과 표현은 무난했으며, 길고 복잡한 작품을 단원 모두가 암보로 연주했다는 사실에 노력의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이번 연주는 세계합창심포지엄 직전 가장 완벽한 상태의 최종본이라 할 수 있을 텐데, 지난 연주와는 다르게 화려한 조명과 배경 영상을 빼고 음향 위주로 무대를 재구성 했다는 것과 단원들의 연주에 약간의

몸동작이 삽입된 점이다. 목소리는 더욱 강렬해졌으며, 동물들의 창조 과정을 표현하는 타악 즉흥 퍼포먼스는 더욱 리얼해졌다. 다만 단원들의 몸동작이 추가된 점은 관객의 다양한 관점에 따라 평가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세계 합창인들의 최대 축제인 IFCM 세계합창심포지엄은 우리 음악의 우수성과 한국인들의 뜨거운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이다. 특히 인천시립합창단의 실험과 모험으로 시작한 한국적 합창작품이 이제 세계인들을 감동시킬 보편적 예술 장르로 자리매김할 때도 머지않은 듯하다. 변함없이 'creo'의 길을 걸어온 인천시립합창단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 **이도연**



울프 보워트의 환상동화

빙하탈출대소동 (The Man The Sea Saw)

2014.7.26~27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사진 유 창 호



작가의 작업, 소통을 통해
작품으로 거듭나는 이야기,

삼인삼색(三人三色) 세 작가가 운영하는 미술 공유 공간

글 유재원 사진 유창호

2014년 「아트인천」은 지역에서 문화를 가꾸는 공간들을 통해 인천의 문화적 변화를 발견해보고 있다. 가을 호에서는 폐쇄된 작업실로부터 벗어나 대중과의 소통을 시도함으로써 작업실을 하나의 작품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미술 공유 공간 세 곳에 들렀다.

지역 작가의 작품을 발굴하여 전시하고자 하는 갤러리 공간.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자유롭게 영감을 주고받으며 창작 작업도 진행할 수 있는 창작 커뮤니티 공간. 일반인들이 미술에 대해 가지는 편견을 상쇄시키는 친근한 초각가의 카페.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세 공간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았다.



높고 투명하게 - 복합 문화·예술 공간 <갤러리 지오>

A.D 인천광역시 중구 해안2동 8-15번지

Tel. 032-773-8155

개항장 거리에 높고 투명한 갤러리가 생겼다. 복합 문화·예술 공간을 표방하는 <갤러리 지오>의 이야기다. 2014년 8월 15일, 오픈을 한 이 공간은 인천환경미술협회에서 오랫동안 활동 해 온 작가 고진오 관장이 야심차게 준비한 공간이다.

<갤러리 지오>는 세 가지 가치를 3층으로 쌓았다. 1층 카페공간에는 다양한 인천 시민들이 미술을 친근하게 접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2층의 독립된 갤러리 공간에는 지역의 작가들을 발굴하고, 그들과 함께 좋은 전시를 기획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넓은 테이블이 있는 3층 갤러리 공간에는 다양한 지역 예술인들이 오가며 사색을 즐기는 창조성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더불어 외관은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유로이 오갈 수 있도록 투명한 유리로 감쌌다. 낮에는 유리창 가득 해가 들고 밤에는 반대로 공간이 빛을 뿜는 것처럼, 작가와 대중이 드나들고 다양한 이야기가 오가는 가운데 다양한 접점들이 생겨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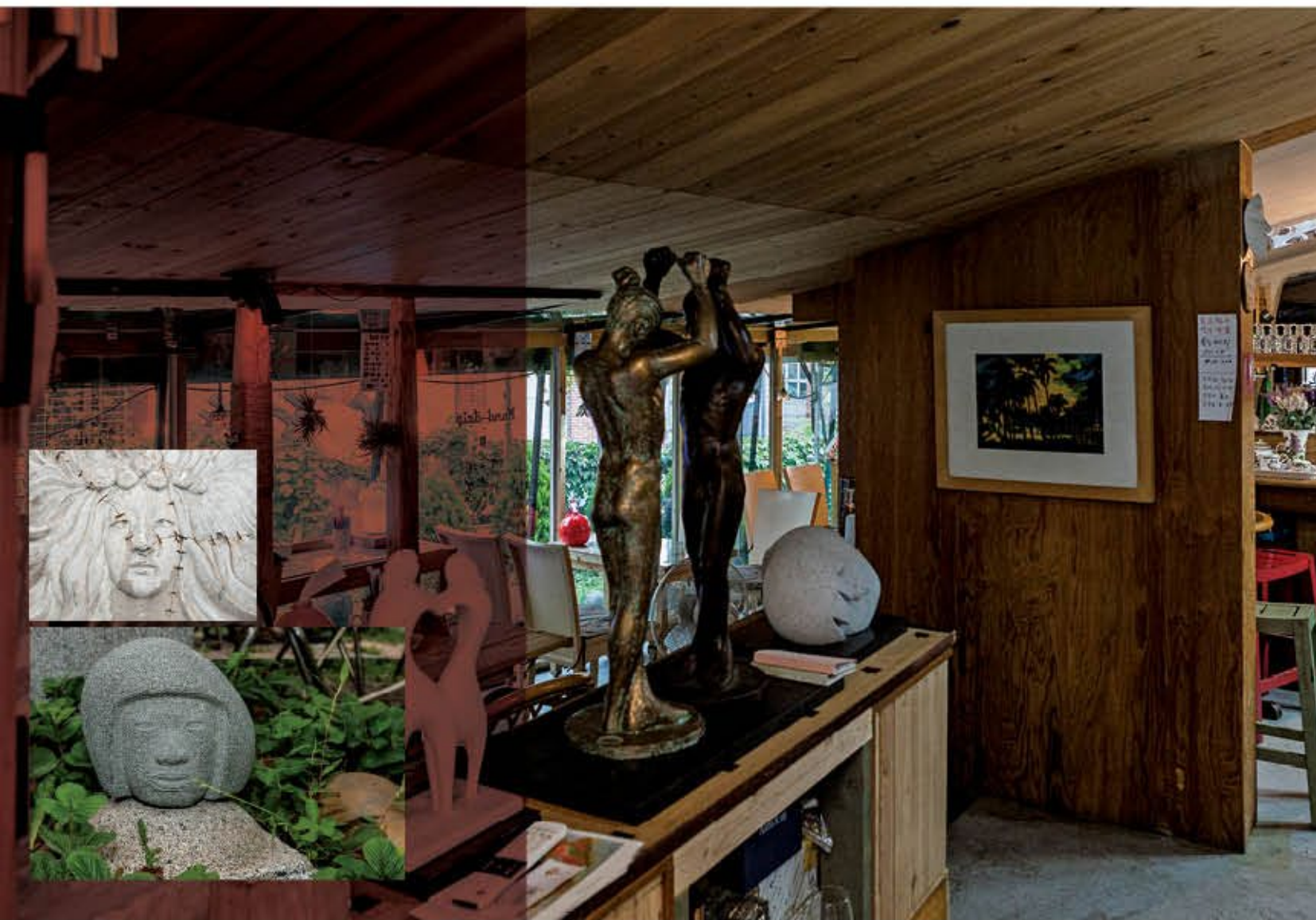
“제 공간이 아니라 많은 작가, 인천 시민들의 공간이 되었으면 해요. 편하게 오셔서 문화·예술을 즐기고, 자라나는 아이들은 문화 체험도 하고, 지역의 예술가들은 3층에서 작업도 하는 그런 공간이요, 더불어 좋은 작가들을 선별해서 좋은 전시를 열고, 신인 작가들에게도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 꿈입니다.”

이러한 꿈을 지닌 <갤러리 지오>는 개관 초대전 <신포로드 815 展>을 시작으로, 다양한 전시들을 기획·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환경 테마 반딧불이 마을 展>(9월 6일~10월 19일)과 장애인들이 꾸미는 미술

전시 <For sound 展>(11월 22일~11월 28일)은 기존 갤러리들이 품기 어려웠던 전시였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지역에서 민간 갤러리를 운영한다는 우려를 무릅쓰고, 소신으로 세운 투명한 공간 <갤러리 지오>의 출발이 고맙고도 믿음직스럽다. 이 야심찬 출발을 응원하는 마음들이 모여 있기 때문일까? 세상이 어두워진 시간에도 <갤러리 지오>는 형형하게 빛난다.





조각으로 지은 카페 - 〈커피에 빠지다〉

A.D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794-1
Tel. 032-832-9874

송도 언덕에 조각으로 지은 카페가 있다. 마치 조각 작품이 집을 짓는 재료의 일부인 양, 수풀과 조각 작품, 카페 공간이 위화감 없이 어우러져 있다. 격 없는 작품의 배치와 자유로운 공간의 분위기는 주인 김길남 작가의 생각과 꼭 닮았다.

“저는 대중적이면서도 예술성이 있는 공간을 표방해요. 어려운 것이 대중적이기는 힘들죠. 그래서 쉬우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호응할 수 있는, 더 보고 싶고 머물고 싶은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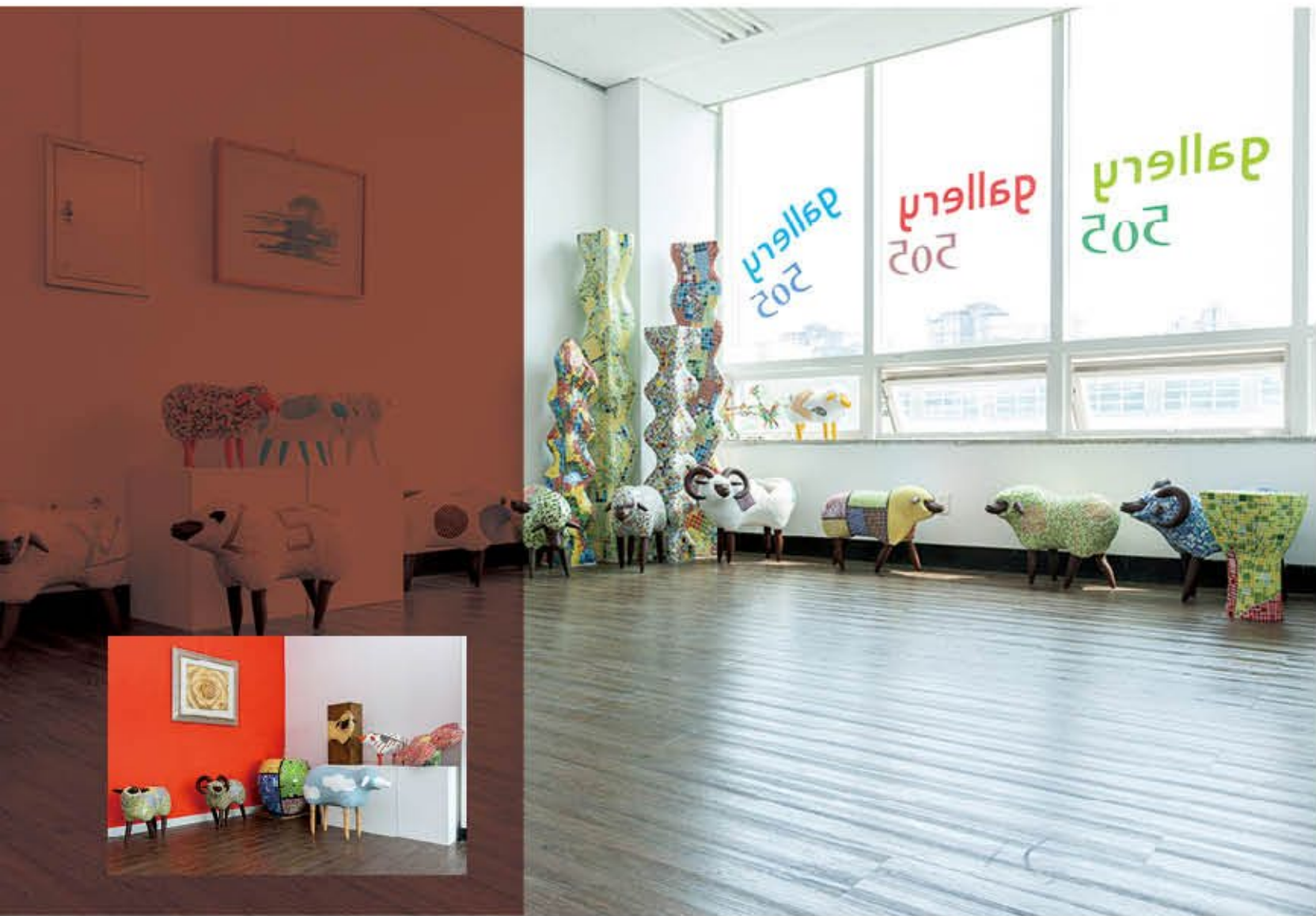
조각가 김길남 씨는 3년 전, 20년간 작업실로 사용하던 공간에 커피를 더했다. 개방성을 가진 자유로운 예술 공간이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견고한 성 같은 예술 공간이 아닌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머무는, 그래서 어렵게만 느껴지는 미술 장르에 대한 벽을 허무는 공간이 하나쯤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커피에 빠지다〉에 있는 그의 작품들은 작품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물건, 공간의 일부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조각들이 작품 이상의 의미를 획득했다고 생각한다. 조각을 곁에 두고 차를 마시며, 누구나 그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풍경에는 그가 추구하는 예술성과 대중성이 모두 스며있기 때문이다.

“카페를 시작하면서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흥미로워 하시고, 조각에 대해 아무 말이라도 쉽게 하시죠. 그럴 때 저는 보람을 많이 느껴요. 작가가 작품 외에도 남길 게 많거든요. 또 작품도 작가라는 한 인간이 혼자서 만들어 내는 게 아니구요. 내가 작업실에만 혼자 묻혀 있으면 어느 수준 이상이 되기가 어려워요, 고립되니까요.”

김길남 작가를 닮아 자유로운 영혼을 지닌 작품들이 각자의 자리에 서 있다. 그렇게 두려고 해서가 아니라 있다 보니 그 자리가 자연스러워졌고, 의미가 생겼다. 꾸미지 않는 솔직함이 소통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공간, 가장 편안한 포즈로 일반 대중을 만나며 예술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공간이 송도의 언덕에 있다.





예술은 놀이 - 대안 공간 <갤러리 505>

A.D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311 3층 갤러리 505

Tel. 010-2794-0826

놀이는 세 가지 조건을 갖는다. 첫째, 여러 사람이 모여야 한다. 둘째, 일정한 규칙과 방법을 가져야 한다. 셋째, 즐거워야 한다. 그러니까 놀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유흥과 분리되는 건강한 영역이고, 지금 우리 생활에서 놀이를 찾아보기란 어렵다. 그래서 대안 공간 <갤러리 505>는 일상과 분리된 건강한 놀이 공간을 표방한다.

"505가 어감이 좋아요. 그리고 어린이날이 5월 5일이잖아요. 어린이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놀아보자는 의미를 담아서 <갤러리 505>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인천에는 놀이 공간이 너무 없어요.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을 하고 노는 자유로운 공간 말이에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와서 즐겁고 편안하게, 부담 없이 즐기는 그리고 그를 통해 생긴 발상들이 다시 창작의 영감이 되는 커뮤니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조각가 이상하 씨는 올해 2월, 우연히 얻게 된 넓은 규모의 작업실을 좀 더 의미 있게 사용할 방법을 궁리했다. 생각을 이어가다 보니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개방만 해도 재밌는 일들이 생겨날 것 같았다. 예상은 적중했다. 돌아가신 선배를 추모하기 위한 작은 전시회, 미술인들 간의 소통 공간, 작은 강의 공간, 자투리 목재를 활용한 창작실... 공간에 사람이 모이기만 해도 재밌는 일들이 자연스레 펼쳐졌다.

예술이 사람을 즐겁게 만드는 놀이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이상하 작가는 앞으로도 공간의 성격을 규정할 생각이 없다. 단지 자유로운 소통, 생활과 밀접한 창작이 이뤄지는 변화무쌍한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개방해 나갈 뿐이다. 공간에 생명력을 불

어넣는 것은 결국 공간을 찾는 사람들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이상하 작가의 대표작인 색색의 양들이 영감과 함께 뛰노는 공간, 폐쇄된 작업실이 아닌 소통을 통한 창작 활동을 지향하는 오픈 커뮤니티. <갤러리 505>에서 평소 품고 있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만들어 보는 경험을 해 보는 것은 어떨까? 예술과 놀이가 다를 바가 없으니 말이다. **이오연**





오래 지속하며 깊이를 더하는 연기

믿음으로 가꾸는 지역 문화의 고유성

인천시립극단 소속 배우 〈무의도 춤 축제〉 기획자 차광영

글 유재원 사진 유창호

아무도 알지 못했다. 1963년, 무의도에서 태어난 작은 소년이 길거리에서 우연히 보게 된 연극 한 편에 영감을 받아 평생을 연극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은, 어느덧 50대가 된 배우가 청년의 눈빛을 하고서 지역 내 문화·예술 활성화에 대한 포부를 이야기할 줄은, 그 포부를 실현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다시 고향 무의도로 돌아가 매년 흥겨운 춤 축제를 벌이고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던 일이지만, 본인만은 그 의미를 일찌감치 깨닫고 명쾌하고 유쾌하게 한 길을 걸었다. 1995년 시립극단에 입단하여, 인천에서만 17년째 연극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배우 차광영 님의 이야기다.



서울에서 했던 신기한 것만
계속 가져다 놓으면 제자리예요
우리끼리 이상한 거라도 일단 해서,
나와 봐야 알아요

“연극의 매력은 평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힘들죠. 젊을 땐 돈 안 돼서 힘들고, 나이 들면서는 끝없이 매너리즘과 싸워 이겨야 하고... 하지만 그렇게 힘든 걸 겪으면서 몸에 뭔가 쌓여요, 연륜 같은 거겠죠? 차곡차곡 몸에 쌓이는 게 느껴지는 거. 그게 연극의 매력이에요” 연극의 매력으로 오래 지속하며 깊어지는 것을 꿈은 그는 지역의 문화·예술 역시 지속적으로 가꾸면 반드시 진보할 것이라고 믿는다.

“인천은 아직 문화·예술에 고유한 색이 없어요. 서울이 가까우니까 나름의 색을 잡기가 힘들죠. 그래서 1년에 하나라도, 인천 작가가 쓴 극을 계속 발굴하고 연구해야 해요. 서울에서 했던 신기한 것만 계속 가져다 놓으면 제자리예요. 우리끼리 이상한 거라도 일단 해서, 나와 봐야 알아요. 그게



지속되면 발전하고 정착할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죠 뭐든.”

이런 믿음으로 그가 직접 기획, 실행해 온 〈무의도춤 축제〉가 올해로 15회를 맞았다. 지역 설화를 발굴해서 창작한 가면극도 공연하고, 신명나는 춤판도 벌이는 축제. 인천에서 살며 한 평생 연극을 해 온 배우가 자신의 고향 무의도의 고유한 문화에 눈을 맞추고, 예술을 입혀 축제를 만들었다.

이런 일을 지속하며 인천의 문화·예술 색깔을 발견하고 싶다는, 자신의 재능과 지역의 진보가 함께 이뤄지기를 바란다는 그가 있기에 인천에 산다는 것이 든든하게 느껴진다. 그 든든함이 공감을 얻어, 오래 지켜보는 사람들로 남기를 바라본다. **이은미**



전 누가 무용이 왜 좋아요?
그러면 야망이나 목표가 있어서
좋다고는 한 번도 대답 안 해봤어요.
저는 그냥 좋아서 한다고 해요. 그 순간이

1993년 대학 졸업과 동시에 시립무용단 입단, 2014년 현재 시립무용단 입단 22년차, 다수의 공연에서 주역을 맡았던 시립무용단 수석단원, 그녀의 이력처럼, 화려한 말썽을 가진 무용수를 떠올리며 인터뷰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몸의 힘을 빼고 이렇게 말했다.

“별 다른 게 없어요, 죽 여기서, 그냥 열심히...”

무대 위에서 숨을 고르는 것 같은 느리고 신중한 말들이 복잡다단한 삶과 무용수로서의 고민을 하나, 하나 길어 올리는 것 같았다. 좋은 움직임 위에서는 과하게 들어간 힘을 풀고, 절제를 통해 호흡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온 몸으로 보여주는 듯 했다.

“전 누가 무용이 왜 좋아요? 그러면 야망이나 목표가 있어서 좋다고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그렇게 대답해 본 적도 없고요, 저는 그냥 좋아서 한다고 해요, 어떤 분들은 너무 무의미한 대답이라고 말씀하시

는데 저는 그냥 춤추는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하루 종일 추고 집에 가서 완전히 지쳐도, 다시 움직이면 좋아요, 그 순간이.”

무용을 향한 답답한 애정은 그녀를 더 단단한 무용수로 키워왔다. 지난 4월 주연을 맡았던 정기공연 〈아라의 서〉가 세월호 참사로 인해 취소되었을 때에도 그녀는 좌절하지 않았다.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안 좋은 일로 그렇게 된 거니까, 누구를 원망한다거나 실망한다거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공연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겠어요, 취소됐다는 얘기 듣고, 집에 가서 초저녁부터 잤어요, 긴장이 풀리니까, 진짜 폭 자더라고요, 그래도 얼마 전에 야외에서 소소하게 공연할 수 있었으니까, 만족해요.”

그녀가 이토록 답답하다고 해서, 치열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녀는 현재 자신의 몸짓을 사랑하는 만큼 그 움직임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

인천시립무용단 수석단원 〈아라의 서〉 주연 무용수 김혜진

노력한다.

“춤이라는 게 내 화(化)가 돼요, 똑같이 셋을 가르쳐도 어느새 내 몸에 익어, 내 스타일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늘 확인하고 긴장해야 해요, 저는 후배들에게 배울 점이 많은 선배로 남고 싶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후배들이 묻는 것에 대해 화신을 갖고 답해주는 선배요, 그러기 위해서는 늘 변하고 노력해야 해요.”

이제 곧 정기공연 준비에 들어간다는 그녀의 말끝에서 자유로운 무용수의 몸짓이 느껴졌다. 마음이 무거운 사람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가벼운 몸짓으로 또렷한 메시지를 품은 그녀의 다음 무대가 기다려진다. **이혜진**

답답하고 단단하게



NEWS



회관-인하대 예술체육학부 인재육성 및 지원에 상호 협력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과 인하대학교 예술체육학부(이하 인하대)가 문화·예술 분야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두 기관은 지난 6월 12일(목) 예술회관 귀빈실에서 만나 인천 지역사회를 위한 공연예술교류 활성화에 앞장 설 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하여 회관과 인하대는 2015년부터 인천시립극단의 정기공연 제작에 연극 전공 학생들을 참가시켜 무대 체험의 기회를 제공,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이는 학생들이 전문가적 소양을 쌓고 사회에 진출하는데 좋은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하대는 이러한 학생들의 활동에 대한 적극적 행정 지원을 펼친다.

두 기관은 향후 공연예술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공동 협력은 물론 교육 관련 자료 조사 및 정보공유, 공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다방면에 걸쳐 서로 협의하는 길을 모색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회관 소방교육 실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은 지난 6월 24일 국제회의장과, 야외광장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소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회관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화재의 위험성과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화재 시 신속한 대처와 초기 진화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한 것이다. 자위소방대 편성 및 임무를 설명하고, 화재 시 행동요령 등 교육을 통해 사전에 숙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야외광장에서는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사용방법과 실습을 통해 유사시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교육은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때에 회관 내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시간이 되었다.

NEWS



시립무용단, 춤 보고, 해보고, 가보고, 춰보는 체험프로그램 <보고(寶庫)> 진행

시립무용단이 아름다운 춤을 보고, 함께 해보고, 그 춤을 추며 그를 통해 보물처럼 감추어진 춤을 찾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지난 6월 8일과 12일 이틀간 총 3회에 걸쳐 초등학교 이상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체험프로그램은 춤 배워보기, 극장투어, 공연관람 등으로 진행되었다. 타 극장 및 단체에서 진행되는 극장체험과 차별화를 두어 음악에 맞춰 춤에서 이루어지는 표현방식을 배워보았으며, 공연장 백스테이지 투어를 통해 공연이 이뤄지는 공연장과 분장실, 연습실을 둘러보며 공연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참가자들은 <사랑가>, <야행>, <선무> 등 무용수들의 몸짓 하나하나에 춤과 가락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무대를 관람하며 춤의 향기가 넘쳐나는 프로그램에 깊은 만족도를 표했다.



시립극단, 청소년 연극 워크숍 개최

시립극단은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17일까지 주 4회 3시간씩 회관 내 시립극단 연습실에서 청소년 연극 워크숍을 개최했다.

여름방학 기간 동안 연극에 관심이 있는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워크숍은 연극이론 및 실기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시립극단 주요철 예술감독과 극단 배우들이 직접 강사로 참여했다. 연기뿐만 아니라 무대, 조명, 음향을 비롯하여 각 분야의 스텝들이 하는 일 등을 배우며 실제 연극 공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 워크숍이 끝나는 8월 17일에 시립극단 연습실에서 3~40분 분량의 단막극 형식의 공연을 올리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 또한 워크숍을 성실히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됐다. 4주 워크숍 과정을 거친 후에 선발된 학생은 11월에 열리는 극단 정기공연에 출연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9월 Performance September



9.2 Welcome Incheon,
젊은 국악 세계인과 말하다
2014. 9. 2 / 오후 7시 / 무료 / 대공연장 / 032)875-4644 / (사)한국국악협회인천광역시지회

9.2 뮤지컬 <딩동이의 모험>
2014. 9. 2 ~ 3 / 2일 오후 1시, 3일 오전 10시30분, 오후 1시 / 전석 2만원 / 소공연장 / 010-2898-0014 / 사랑국단 꼬마세상

9.3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39회 정기연주회
<Gum Nanse's Choice II>
2014. 9. 3 / 오후 7시30분 /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 대공연장 / 1588-2341 / 인천시립교향악단

9.4 제19회 합창단 정기연주회
2014. 9. 4 / 오후 7시30분 / 초대 / 대공연장 / 032)517-1753 / 인천여성가족재단

9.5 2014 인천안무가전
2014. 9. 5 / 오후 7시30분 / 전석 1만원 / 소공연장 / 032)438-2004 / (사)인천안무가협회

9.6 2014 윤종신 콘서트
2014. 9. 6 / 오후 7시 / R석 8만8천원, S석 7만7천원 / 대공연장 / 1588-2341 / (주)엔터테인먼트인먼트

9.12 창단 10주년 기념공연
<구름에 달 가듯이>
2014. 9. 12 / 오후 7시 30분 / 무료 / 소공연장 / 032)749-7292 / 연수구립동문단

9.13 <연극열전5> 1st 이순재
고두심의 사랑별곡
2014. 9. 13 ~ 14 / 13일 오후 3시, 7시, 14일 오후 2시 / R석 7만원, S석 6만원 / 대공연장 / 1566-6551 / 청라아트

9.13 제22회 청소년음악회
2014. 9. 13 / 오후 5시 / 전석 1만원 / 소공연장 / 032)438-6040 / 인천청소년교향악단

9.17 전국무용제 20주년 기념
<달을 안고 사는 여자>
2014. 9. 17 / 오후 7시30분 / 일반 2만원, 학생 단체 5천원 / 대공연장 / 032)835-8621 / 이은주무용단

9.17 커피콘서트IX 피아니스트
서혜경의 열정
2014. 9. 17 / 오후 2시 / 전석 1만5천원 / 소공연장 / 1588-2341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9.19 밴드데이, 가을방학
2014. 9. 19 / 오후 8시 / 전석 2만원 / 소공연장 / 1588-2341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9.20 오페라 <Don Giovanni>
2014. 9. 20 ~ 21 / 오후 3시, 7시 / 초대 / 대공연장 / 032)458-2335 / 인천AG조직위원회

9.20 가족뮤지컬 <라분젤>
2014. 9. 20 ~ 21 / 20일 오후 2시, 4시, 7시, 21일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 R석 3만원, S석 2만5천원 / 소공연장 / 02)2681-2075 / 극단에인

9.23 명품클래식 시리즈IV
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 스위스아달리안오케스트라 내한공연
2014. 9. 23 / 오후 8시 /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 / 대공연장 / 1588-2341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9.26 제23회 전국무용제 in 인천 <개막식>
2014. 9. 26 / 오후 7시 / 전석 2만원 / 대공연장 / 032)502-5474 / (사)한국무용협회 인천광역시지회

9.26 스테이지149
연극<알리바이 연대기>
2014. 9. 26 ~ 27 / 26일 오후 7시30분, 27일 오후 3시, 7시 / 전석 2만원 / 소공연장 / 1588-2341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9.27 제23회 전국무용제 in 인천 <경연A·B팀>
2014. 9. 27 ~ 30 / 오후 5시 / 전석 1만원 / 소공연장 / 070-7532-4325 / 문화공작소세움

10월 Performance October

10.1 제23회 전국무용제 in 인천 <경연A·B팀>
2014. 10. 1 ~ 4 / 오후 7시 / 전석 2만원 / 대공연장 / 032)502-5474 / (사)한국무용협회 인천광역시지회

10.5 제23회 전국무용제 in 인천 <사상식 및 폐막식>
2014. 10. 5 / 오후 6시 / 전석 2만원 / 대공연장 / 032)502-5474 / (사)한국무용협회 인천광역시지회

10.8 인천광역시 근로자 가요제
2014. 10. 8 / 오후 5시30분 / 초대 / 소공연장 / 032)437-8501 / 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

10.9 568돌 한글날 경축식
2014. 10. 9 / 오전 10시 / 초대 / 대공연장 / 032)440-2215 / 인천광역시 총무과

10.9 제5회 뮤직플라이 플룻양상을 정기연주회
2014. 10. 9 / 오후 6시 / 초대 / 소공연장 / 010-6204-6431 / 뮤직플라이플룻양상플

10.10 제2회 시민합창제
2014. 10. 10 / 오후 7시30분 / 초대 / 대공연장 / 032)420-2784 / 인천시립합창단

10.10 인천시립교향악단 <베토벤리III>
2014. 10. 10 / 오후 7시30분 /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 소공연장 / 1588-2341 / 인천시립교향악단

※입장 및 프로그램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습니다.



10 21



10 23



10 24



10 30



10 11 제7회 플릴란테 피아노 듀오 콘서트
2014. 10. 11 / 오후 3시 / 무료 / 소공연장 / 010-6309-5587 / 브릴란테

10 12 제24회 정기공연 〈가곡과 아리아의 밤〉
2014. 10. 12 / 오후 7시 / R석 5만원 S석 3만원 / 대공연장 / 032)435-1281 / 미추홀오페라단

10 15 제50주년 인천시민의날 기념식
2014. 10. 15 / 오전 10시 / 초대 / 대공연장 / 032)440-2503 / 인천광역시 총무과

10 15 커피콘서트X 플레루드와 전영랑의 조우 〈Fly in - 날아든다〉
2014. 10. 15 / 오후 2시 / 전석 1만5천원 / 소공연장 / 1588-2341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0 16 제47회 정기연주회
2014. 10. 16 / 오후 7시30분 / 초대 / 대공연장 / 032)277-1434 / 인천남성합창단

10 16 리디안 우쿨렐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2014. 10. 16 / 오후 7시30분 / 초대 / 소공연장 / 010-2245-3514 / 리디안우쿨렐레앙상블

10 17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40회 정기연주회 〈Korean Maestro Ⅲ〉
2014. 10. 17 / 오후 7시30분 /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 대공연장 / 1588-2341 / 인천시립교향악단

10 18 2014인천장애인아시아인계일 문화공연 〈마리오네트〉
2014. 10. 18 / 오후 3시, 7시 / 초대 / 대공연장 / 032)458-5357 / 인천장애인조직위원회

10 18 2014인천장애인아시아인계일 문화공연 〈어린이 뮤지컬 꿈꾸는 모자여행〉
2014. 10. 18 / 오후 1시 / 초대 / 소공연장 / 032)458-5357 / 인천장애인조직위원회

10 19 2014인천장애인아시아인계일 문화공연 〈APG 성공개회 사랑의 음악회〉
2014. 10. 19 / 오후 5시 / 초대 / 대공연장 / 032)458-5357 / 인천장애인조직위원회

10 21 2014인천장애인아시아인계일 문화공연 〈탈(TAL)〉
2014. 10. 21 / 오후 3시, 7시 / 초대 / 대공연장 / 032)458-5357 / 인천장애인조직위원회

10 22 2014인천장애인아시아인계일 문화공연 〈한울소리 앞어쇼〉
2014. 10. 22 / 오후 1시 / 초대 / 대공연장 / 032)458-5357 / 인천장애인조직위원회

10 23 2014인천장애인아시아인계일 문화공연 〈한빛예술단 콘서트〉
2014. 10. 23 / 오후 7시 / 초대 / 대공연장 / 032)458-5357 / 인천장애인조직위원회

10 23 2014인천장애인아시아인계일 문화공연 〈장애인밴드 음악콘서트〉
2014. 10. 23 / 오후 1시 / 초대 / 소공연장 / 032)458-5357 / 인천장애인조직위원회

10 24 2014인천장애인아시아인계일 문화공연 〈하트하트 오케스트라〉
2014. 10. 24 / 오후 5시 / 무료 / 소공연장 / 032)458-5357 / 인천장애인조직위원회

10 25 제2회 색소폰양상들 정기연주회
2014. 10. 25 / 오후 7시 / 전석 3만원 / 소공연장 / 032)811-1148 / 에오름색소폰양상들

10 26 2014 푸른희망 콘서트
2014. 10. 26 / 오후 5시 / VIP 5만원, 일반 3만5천원 / 소공연장 / 032)365-4673 / (사)한국희망재단

10 28 제18회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2014. 10. 28 / 오후 7시30분 / 초대 / 대공연장 / 032)511-3141 / 인천여성가곡재단

10 30 인천시립합창단 제142회 정기연주회
2014. 10. 30 / 오후 7시30분 / 전석 1만원 / 대공연장 / 032)420-2784 / 인천시립합창단

11월 Performance November

※일정 및 프로그램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습니다.

11 1 EBS 가족교향지킴이 〈러버〉
2014. 11. 1 ~ 2 /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30분 / R석 5만원, S석 4만원 / 대공연장 / 1566-6551 / 오름기획

11 6 창작영어뮤지컬
2014. 11. 6 / 오전 11시, 2시, 4시 / 초대 / 소공연장 / 032)250-2174 / 인천정보산업진흥원

11 7 제20회 정기연주회
2014. 11. 7 / 오후 7시30분 / 초대 / 소공연장 / 032)880-4296 / 인천남구여성합창단

11 8 뮤지컬 〈헤드윅〉
2014. 11. 8 ~ 9 / 8일 오후 3시, 7시, 9일 오후 2시, 6시 / R석 7만원, S석 6만원 / 대공연장 / 1566-6551 / 청라이프

11 8 신금호의 오페라이야기 CF classic
2014. 11. 8 / 오후 7시30분 / R석 3만원, S석 2만원 / 소공연장 / 010-2479-0111 / 엠컬처스

11 9 바이올리니스트 전효숙과 함께하는 클래식
2014. 11. 9 / 오후 5시 / 전석 1만원 / 소공연장 / 032-888-0808 / 인음예술단

11 11 인천해광오케스트라 제4회 정기연주회
2014. 11. 11 / 오후 7시 / 초대 / 대공연장 / 032)522-8345 / 인천해광오케스트라

11 12 11회 작은천사들의 길을 알프스의 음악여행
2014. 11. 12 / 오후 7시 / 초대 / 대공연장 / 032)785-0220 / 미추홀요들단

11 12 커피콘서트·랩댄스컴퍼니 스텝의 리틀스토리
2014. 11. 12 / 오후 2시 / 전석 1만5천원 / 소공연장 / 1588-2341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1 14 밴드데이X 갤럭시 익스프레스
2014. 11. 14 / 오후 8시 / 전석 2만원 / 소공연장 / 1588-2341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1 15 EBS 특! 특! 보니하니 쇼!
2014. 11. 15 ~ 16 /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5시, 16일 오전 11시, 오후 2시 / R석 5만5천원, S석 4만4천원 / 대공연장 / 031)269-1311 / 파워프로모션

11 15 제6회 인천기타양상들 정기연주회
2014. 11. 15 / 오후 5시 / 전석 1만원 / 소공연장 / 032)330-4561 / 인천기타양상들

11 16 은율탈춤과 빛 그리고 소리
2014. 11. 16 / 오후 4시 / 초대 / 소공연장 / 032)875-9953 / 은율탈춤보존

11 18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41회 정기연주회 〈2014 Piano&Pianist Ⅲ〉
2014. 11. 18 / 오후 7시30분 /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 대공연장 / 1588-2341 / 인천시립교향악단

11 20 인천시립합창단 고3수험생을 위한 음악회
2014. 11. 20 / 미정 / 미정 / 대공연장 / 032)420-2784 / 인천시립합창단

11 21 제31회 새얼 가곡과 아리아의 밤
2014. 11. 21 / 오후 7시30분 / 초대 / 대공연장 / 032)885-3611 / 새얼문화재단

11 22 인천시립극단 기획공연 청소년과 함께하는 연극 〈우리 읍내〉
2014. 11. 22 ~ 23 / 미정 / 미정 / 소공연장 / 032)420-2790 / 인천시립극단

11 29 인천시립무용단 제79회 정기공연 〈Gate〉
2014. 11. 29 ~ 30 / 오후 5시 / 전석 2만원 / 대공연장 / 032)420-2788 / 인천시립무용단



11 12



11 14



11 22



11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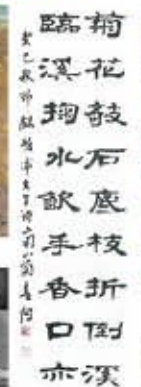
9월 Exhibition September



그림벚진



인천가톨릭미술관



한중서예국제교류전



인천미술한마당축제



아라희



인천산동국서미술교류전



한중서예국제교류전



박수미

10월 Exhibition October



이정근



TRACE전 노희경



이은하



글로벌서각오케스트라



실버미술대전



미우희



그레가공씨,올려보기



한국문인화협회



전국공모인천미술대전

11월 Exhibition November



조선의 궁중연회



인천아트페어



한국미술작가회



인천도예전

9월 September

9.1 제21회 한·중 서예국제교류전
2014. 9. 1 ~ 4 / 대전시실 / 010-2285-8876 / 사한국서예협회 인천광역시지회

9.1 젊은아들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2014. 9. 1 ~ 4 / 중앙전시실 / 010-3158-4801 / 인천가톨릭미술관

9.1 제5회 아라희 작품전 (사계, 색의 귀환전)
2014. 9. 1 ~ 4 / 소전시실 / 010-6344-5064 / 아라희

9.1 제16회 그림벚진
2014. 9. 1 ~ 4 / 미추홀전시실 / 010-4214-8622 / 그림벚진

9.5 2014 인천미술한마당축제
2014. 9. 5 ~ 11 / 전시실 전관 / 032)867-2196 / 인천미술협회

9.12 아시안게임 세계적 홍보를 위한 2014 인천세계미술제
2014. 9. 12 ~ 18 / 대. 중앙. 소전시실 / 010-8720-3098 / 사인천광역시 미술협회

9.12 2014년 인천-산동 국제미술교류전
2014. 9. 12 ~ 18 / 미추홀전시실 / 032)867-2196 / 인천미술협회

9.19 2013 인천국제디자인페어
2014. 9. 19 ~ 25 / 대. 중앙전시실 / 070-8611-9995 / 사인천산동디자인협회

9.19 제3회 박수미 개인전
2014. 9. 19 ~ 25 / 소전시실 / 010-3749-7466 / 박수미

9.19 서화 개인전
2014. 9. 19 ~ 25 / 미추홀전시실 / 010-3766-1190 / 김정분

9.26 10.4 남북정상선언 7주년 평화대 축전(명상전)
2014. 9. 26 ~ 10. 9 / 대전시실 / 032-440-3362 / 인천광역시 국제협력관실

9.26 제31회 인천수석인용연합전
2014. 9. 26 ~ 29 / 중앙. 소전시실 / 010-2063-6431 / 사인천수석인용연합회

9.26 제11회 불빛 정기전
2014. 9. 26 ~ 10. 2 / 미추홀전시실 / 010-6708-3339 / 불빛 이남숙

10월 October

10.9 인천시 서예가협회 회원전 및 중국 교류전
2014. 10. 3 ~ 9 / 중앙. 소전시실 / 010-3934-2342 / 인천시서예가협회

10.9 이정근 도예전
2014. 10. 3 ~ 9 / 미추홀전시실 / 010-2256-5202 / 이정근

10.10 그레가공씨,올려보기
2014. 10. 10 ~ 16 / 대전시실 / 010-4284-7332 / 신은섭

10.10 제3회 이은하 개인전
2014. 10. 10 ~ 16 / 중앙전시실 / 010-3449-5238 / 이은하

10.10 아철명 수채화 신작전
2014. 10. 10 ~ 16 / 소전시실 / 032-429-1220 / 아철명

10.10 TRACE전
2014. 10. 10 ~ 16 / 미추홀전시실 / 016-249-1702 / 포트보이스노회경

10.17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기념 한·중·일·아태 장애인미술가 협동전
2014. 10. 17 ~ 23 / 대전시실 / 032-458-5353 /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10.17 장애인 다류 상영전
2014. 10. 17 ~ 23 / 중앙전시실 / 032-458-5353 /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10.17 한국 전통 민화전
2014. 10. 17 ~ 23 / 소전시실 / 032-458-5353 /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10.17 제17회 한국문인화협회 인천지회전
2014. 10. 17 ~ 23 / 미추홀전시실 / 010-2857-1456 / 임하숙

10.24 제50회 전국공모 인천미술대전 및 초대작가전
2014. 10. 24 ~ 30 / 전시실 전관 / 032-867-2196 / 인천미술협회

10.31 글로벌서각오케스트라
2014. 10. 31 ~ 11. 6 / 대. 중앙전시실 / 010-5530-6350 / 사한국서예협회

10.31 제7회 미우희정기전 <아름다운 친구들의 삶의 흔적>
2014. 10. 31 ~ 11. 6 / 소전시실 / 010-2413-9210 / 미우희

10.31 대한민국 실버미술대전
2014. 10. 31 ~ 11. 6 / 미추홀전시실 / 010-9494-3956 / 대한민국실버미술대전 조직위원회

11월 November

11.7 2014 인천건축문화제
2014. 11. 7 ~ 13 / 전시실 전관 / 032-440-4723 /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

11.14 2014년 인천아트페어
2014. 11. 14 ~ 20 / 전시실 전관 / 032-867-2196 / 인천미술협회

11.21 조선의 궁중연회
2014. 11. 21 ~ 27 / 대전시실 / 010-5358-0471 / 사한복문화학회 인천지회

11.21 제18회 정기전 <인천(仁川)도(島)애(愛)전>
2014. 11. 21 ~ 27 / 중앙전시실 / 010-3741-5525 / 인천현대도예가회

11.21 제5회 비한국미술작가회 그림자전
2014. 11. 21 ~ 27 / 소전시실 / 010-5720-8978 / 비한국미술작가회

11.21 성목력으로 부터 안전한 인천! 우리가 생각해봐요!
2014. 11. 21 ~ 11. 27 / 미추홀전시실 / 032-440-2757 / 인천광역시 여성정책과

Culture Leader

회원가입안내

Pause... '쉼'이 필요하시다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Culture Leader 회원이 되세요.
살이 풍요로워 집니다.



Culture Friends 제휴점 이용시 할인 제공

계간 문예정보지 「아트인천」 무료 우송

월간 Program Guide(공연안내지) 무료 우송

회관 기획 초대공연의 경우 우선적으로 초대권 발송

기획 및 시립예술단 공연 10 ~ 40% 범위 내 할인 (일반회원 2매한 / 가족회원 4매한)

회원가입방법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art.incheon.go.kr)에 접속 → 우측상단의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 → '유료회원가입하기' 클릭 가입신청서 기재 후 '확인'
- 회원가입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하시고, 선택하신 유료회원에 해당하는 연회비를 아래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금계좌
신한은행 100-022-745489(종합문화예술회관)
- 입금확인 연락처 : 032) 420-2739 정기회원담당자

회원공연예매는 이렇게

- 매월 공연안내지 발송 시 '회원 안내문'에 회원 할인공연을 정리하여 보내드립니다.
- 회원 할인대상 공연에 대한 예매는 '회원 안내문'에 기재된 예매처로 예매하시면 편리합니다.
- 회원 할인 전화예매는 공연 3일전까지 가능하며 공연 당일 매표소에서 회원증 제시하시면 예매하신 좌석권을 교부해 드립니다.
- 예매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해당 기획사로 연락바라며, 회원 예매에 불편함이 있으시면 아래의 회원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정기회원담당자 : 032) 420-2739

센트럴프라자호텔
릴리레스토랑
중식(샐러드뷔페) 25%
호텔객실 50% 할인

센트럴프라자호텔 2층에 위치한 릴리 레스토랑은 아침에는 투숙객을 위한 조식뷔페장으로 활용되며, 런치에는 샐러드뷔페로 연중 상설로 운영됩니다. 샐러드뷔페 메뉴에는 시즌별로 계절샐러드와 파스타류, 베이커리, 핫 디쉬 등 약 45개 종류의 메뉴가 풍성하게 제공되며, 별도로 안심스테이크, 등심스테이크를 주문하실 경우 샐러드 뷔페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남동구 예술로204번길 15 센트럴프라자호텔 2층
Tel. 032)724-1000

Serendip
Dining Cafe
다이닝카페 세렌디프
모든메뉴 10% 할인

다이닝카페 '세렌디프'는 송도신도시 커널워크에 새롭게 문을 연 고급 레스토랑이다. 감각적이고 모던한 인테리어는 물론, 인천대교의 야경과 커널워크의 산책로는 고객님께 멋진 추억을 만들어 준다. 특급 호텔 출신의 경영진과 셰프가 모여 만든 고급메뉴와 합리적인 가격과 서비스는 연인, 친목모임은 물론 귀한 손님을 모시기에 손색이 없다.

모바일앱 www.serendip.kr

연수구 송도동17-1 커널워크 401동(Winter) 205호
Tel. 032)261-0400

로스터리 커피하우스
Petit Art
로터리커피 하우스
모든메뉴 10% 할인

예술회관 바로 옆엔 로스터리카페 '쁘띠아트 (petit art 작은 예술공간)'가 있다. 카페에선 후지로일(3kg)의 성세한 불꽃으로 생두를 볶고, 핸드드립으로 원두의 풍미를 절묘하게 담아낸다. 세계 곳곳의 스페셜티 커피를 구해서, 고르고 볶고 내리는 주인의 손길은 마이스트로의 몸짓처럼 신중하고 단호하다. 음악과 연극 그리고 커피... 살이 되는 예술, 그 어디쯤에 뿌띠아트가 있다.

예술회관 소공연장 건너편, 남동구 문화로 93-1
Tel. 032)427-9228

포린커피
커피 및 음료 10% 할인

예술회관 주차장 입구의 건너편에 위치한 포린커피 (Fall in coffee)는 주인장이 직접 로스팅한 신선한 아라비카 원두만을 사용하여 커피를 내립니다. 산자별로 특별한 향의 핸드드립커피를 맛볼 수 있으며 원두도 판매하고있습니다. 여름에는 직접과일을 넣어 만드는 '진짜과일 스무디'와 국산 쌀로 직접 쑀어 만든 '술직한 팥방수'를 만나실수 있습니다.

예술회관 주차장 입구 건너편, 남동구 문화로 61
Tel. 032)429-1107

Culture Friends

제휴점

공연정보가 제공되고
공연의 감동이 이어지는 공간
Culture Friends 제휴점에서
Culture Leader 회원증을 제시해 주시면
소정의 할인혜택을 제공합니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약도 및 교통편 안내



■ 지하철 이용시

국철 1호선 부평역에서 인천지하철 국제업무지구방면으로 환승하여 예술회관역 하차 6번 출구

■ 버스이용시

- 예술회관역 정류장 간선버스(파랑) : 21, 41, 77, 754
- 문화예술회관 정류장 지선버스(초록) : 523, 534
- 신세계백화점(터미널) 정류장 (인천시청방면 도보 10분)
간선도로(파랑) : 3, 4, 6, 6-1, 11, 13, 21-1, 22, 27, 35, 36, 38
지선버스(초록) : 31, 514, 514-1, 520, 534
좌석버스 : 111, 111-2, 700
광역버스 : 1300, 1400

■ 자가용 이용시

• 경인고속도로
도화IC → 도화초교사거리(주안역방면 우회전) → 주안역삼거리(문학경기장방면 우회전) → 구 시민회관 사거리(석바위 방면 좌회전) → 시청역사거리(종합문화예술회관 방면 우회전) → 예술회관역 → 종합문화예술회관 주차장(우회전)

•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 IC → 남동경찰서 사거리(종합문화예술회관 방면 좌회전 → 터미널 중앙공원 사거리(종합문화예술회관 방면 우회전) → 종합문화예술회관 주차장(우회전)

■ 주차안내

• 주차요금

- 처음 30분 : 일반차량 600원 (경차 및 장애인 차량은 할인 적용 됩니다.)
- 정산소에 공연티켓 또는 관람확인증 제출 시 3시간 기준 1,500원입니다.

• 주차시설 이용문의처 :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032)579-2701~3

※ 공연관람시 주차요금은 공연티켓을 제출하시면 1,500원 정액 지급

※ 교통이 혼잡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테이지
149

연극선집 4

문화나눔
문화나눔
문화나눔

INCHEON
CULTURE & ARTS
CENTER



20th
Anniversary

카로 마케스

2014. **12.5** (금) 14:30, 19:30 ~ **12.6** (토) 15:00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전석 2만원(사랑티켓 1만 3천원)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INCHEON
CULTURE & ARTS
CENTER



20th
Anniversary

R. 슈트라우스 탄생 150주년 기념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40회 정기연주회

KOREAN MAESTRO III

2014.10.17 FRI 7:30 PM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PROGRAM

R. 슈트라우스(1864-1949)

돈 주앙 Op.20

R. 슈트라우스(1864-1949)

4개의 마지막 노래

INTERMISSION

R. 슈트라우스(1864-1949)

장미의 기사 모음곡 AV.145, Op.59

(*All R. Strauss Program)



객원지휘 정주영



테너 김재형

주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공연문의 인천시립교향악단 032)438-7772 · 420-2781 R석10,000원 S석7,000원 A석5,000원

예매처 예술회관 032)420-2000 art.incheon.go.kr 엔티켓 1588-2341 enticket.com